

2013. 10. 17(목)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 일 시 : 2013. 10. 17(목)
- 장 소 : 제주발전연구원
- 주 최 : 제주발전연구원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주 관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재)지역재단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I. 워크숍 개요

1. 목 적

- 선진외국 및 자치단체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간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교류 활성화
- 외국의 협동조합 선진사례의 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방안 모색
-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방안 모색

2. 개 요

- 주 제 :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 일 시 : 2013. 10. 17(목)
- 장 소 : 제주발전연구원 세미나실 외
- 주 최 : 제주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참석인원 : 전문가(교수, 연구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활동가 등 50명

시 간 계 획

시 간	주 요 일 정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식 <div> <div>■ 사회 : 박원배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div> <div>□ 축 사 :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div> </div>
14:10-14:40	기조발제 <div> <div>□ “내발적 발전과 사회적경제”</div> <div>• 박진도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전 충남발전연구원장)</div> </div>
14:50-16:10	주제발제 <div> <div>□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div> <div>• 박상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div> <div>□ “유럽의 다기능 농업 사례”</div> <div>• 정현희 충남발전연구원 6차산업화센터 책임연구원</div> <div>□ “퀘벡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div> <div>• 장효안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div> <div>□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구축과 활성화 방안”</div> <div>• 최영근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div> </div>
16:10-16:30	중간휴식
16:30-17:50	종합토론 <div> <div>□ 좌장 : 공영민 제주발전연구원장</div> <div>□ 토론자</div> <div> <div>•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div> <div>•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div> <div>•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div> </div> </div>
17:50-18:00	폐회

목 차

기 조 발 제	“ 내발적 발전과 사회적경제 ”	5
주 제 발 제	제 1 발제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23
	제 2 발제 “유럽의 다기능 농업 사례”	43
	제 3 발제 “퀘벡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51
	제 4 발제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구축과 활성화 방안”	65
중 합 토 론	제 1 토론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	87
	제 2 토론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은 역사적 경험과 시민사회의 역량에 비례한다.”	91
	제 3 토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위해”	95

01

기 조 발 제

내발적 발전과 사회적경제

박진도(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내발적 발전과 사회적경제

2013.10.17

박진도(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무엇이 문제인가 – 신자유주의의 뒷

• 불평등

• 실업

• 탐욕



Occupy Wall Street

We are the 99%



Occupy
Washington D.C.



2012.1 세계경제포럼(다보스)

고장 난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더 이상 경제성장, 수출증대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음

2001-2010년 국내총생산 2배, 수출 3배, 일인당 국민소득은 2배 증가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더 나빠짐

- 1980-2011년 : 30대 재벌의 자산은 70배, 매출은 48배 증가
 - 5대 그룹의 매출액 비중 : 국내총생산 대비 201년 49.5%, 2010년 53.7%(친족 그룹까지 합치면 70.4%)
 - 2012년 5대 그룹 계열사가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이 55.2%(삼성전자 29.8%, 현대차 14.5%)
- 국민의 삶은 오히려 악화: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증가
 - 가계 저축율: 1990년대 초 20%에서 2012년 4.7%로 하락. 가계부채 급증
 - 중산층비율 하락과 빈곤층 상승(1990년의 7.5%에서 2010년 12.5%)
 - 농가: 실질소득 감소, 농촌 내 양극화 심화

재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강화

- 신자유주의의 프레임 혹은 이데올로기에 포획됨
 - 시장은 효율적이다: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동시다발적 FTA, TPP 참여
 - GDP 중심의 성장지상주의, 경제제일주의의 지배: trickle-down
 - 인간은 이기적이다.
- 신자유주의는 잉여를 생산하는 시스템: 신자유주의의 피해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
 - 예, 스펙: 청년실업은 신자유주의의 가장 커다란 문제임. 그러나 청년실업의 원인이 스펙 탓으로 돌림
 -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만이 살 길이다: 신자유주의 개방으로 망해가는 농민에게 국제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함.
- 콜린 크라우치: 글로벌 기업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빈 껍데기로 전락시키고, 국가권력을 수중에 장악하였기 때문에 국가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포스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지역의 위기

1. 신자유주의의 본질

- ◆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 배제 혹은 최소화 즉 경제자유화와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 재정지출의 삭감과 감세,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주장
- ◆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시장주의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초국적 자본에 의한, 초국적 자본을 위한 이데올로기.
- ◆ 50, 60년대의 자본주의 황금기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일정한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성립하였다면, 신자유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일방적 우위에 기초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이데올로기
- ◆ 세계화란 초국적 자본의 경제활동 무대를 세계로 확장하기는 위한 이데올로기. 동시에 달러와 영어를 앞세운 미국화 즉 미국식 문화(제도)의 세계화

2. 세계화와 지역의 위기

- ◆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쇠퇴
 - 지역경제는 세계시장에 통합되면 될 수록 불안정성은 증대하고, 지역경제의 희망성쇠가 초국적 자본에 의해 좌우됨
 - 세계화 특히 금융 세계화는 고도의 기업서비스 활동과 정보통신시설이 집중된 이른바 세계도시(예, 서울)를 필요로 하고, 세계도시는 세계경제의 지역적 네트워크로 존재하고, 세계경제의 지역적 네트워크에 포함된 일부 지역(예, 울산, 창원, 포항, 천안)은 성장하지만, 대다수의 지역은 배제됨
- ◆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그러한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의 붕괴
- ◆ 대형유통자본에 의한 자영업자의 몰락, 중소기업, 농촌경제의 쇠퇴
- ◆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위협: 주거, 보육, 교육, 보건의료, 환경, 문화 등에서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와 시장화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삶을 위협
- ◆ 신자유주의 분권화에 의해서 지역의 자립과 재정력 강화를 강요.
무분별한 기업유치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난개발로 인한 지역환경의 위기와 지방재정의 위기, 주민의 삶의 위기를 초래

3. 세계화와 지역의 불균형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 ◆ 지역내 불균형의 심화: 충남경제 사례
 - 충남은 2000-2009년에 GRDP의 연평균증가율 9.1%로 전국 1위. 일인당 GRDP는 전국 2위.
 - 충남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본사를 수도권에 둔 재벌계 대기업에 의한 수출산업.
 - 그 결과 2010년 충남의 총요소 소득 40조원 가운데 16조원이 역외로 유출됨.
 - 충청남도 16개 시군 가운데 천안,아산,서산,당진시 북부권의 4개 시가 충남 GRDP의 68.1%를 차지
 -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2007년 기준)은 아산시(0.8%), 천안시(1.6%), 계룡시(2.6%), 당진군(4.8%), 서산시(4.7%), 청양군(34.4%), 부여군(29.8%), 서천군(17.9%), 보령시(17.5%), 태안군(17.1%), 예산군(15.6%), 논산시(14.1%), 공주시(12.9%), 홍성군(10.9%), 금산군(9.35), 연기군(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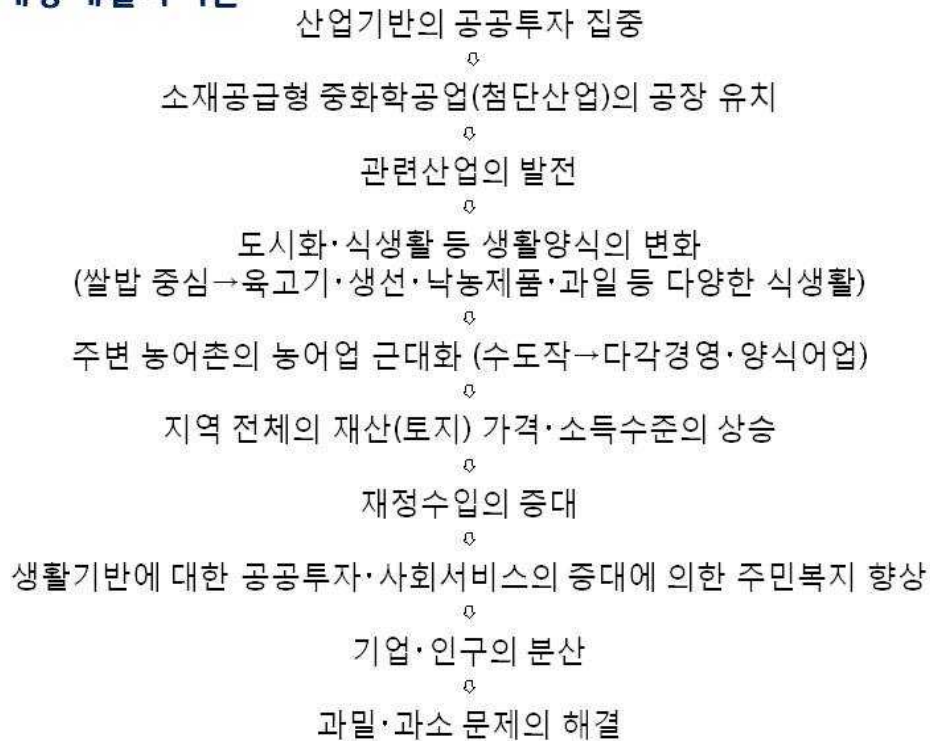
지역개발의 전략

1. 지역발전의 두 가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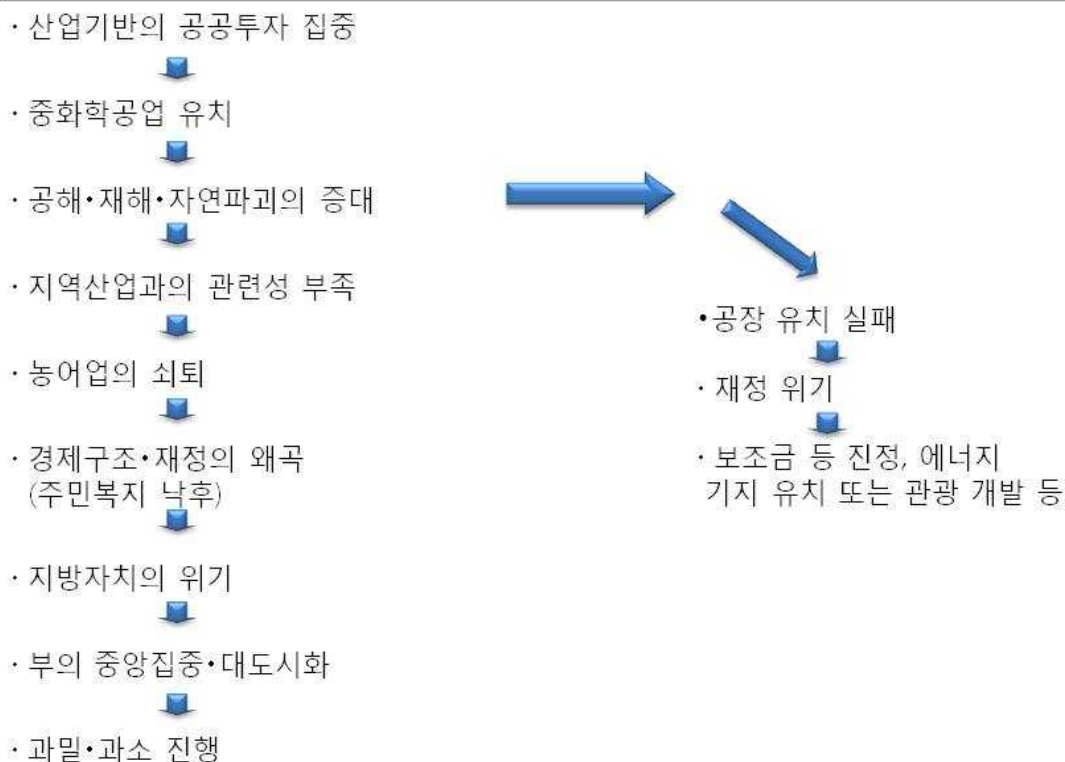
외생적(외래형) 개발 전략	비교 내용	내발적 발전 전략
- 선진지역과 비교한 경제, 기술, 사회, 문화적 낙후성	지역의 문제	-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주도할 지역역량의 부족
- 외부로부터 추진	발전동력	- 원칙적으로 지역내부로부터 추진 - 지역외부와와의 관계 중시
- 중앙에 의한 하향식 개발	발전주체	- 지역주도의 상향식 발전 - 주민참가와 협동자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파트너십
- 중앙정부에 의한 SOC 기반정비 - 보조금 및 조세감면 - 외부자본의 유치	발전전략	-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의 성과가 최대한 지역 내에 보전되도록 함 - 외래자본의 주체적 활용
- 경제적 개발	발전목표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통합발전, 주체역량 강화

2. 외래형 개발의 이론과 현실

□ 외래형 개발의 이론



□ 외래형 개발의 현실



○ 외래형 개발의 한계

- 기업유치전략의 한계: race to the bottom
- 중앙정부 의존형 개발의 한계: 중앙집권적 분산 재정시스템의 한계

○ 외래형 개발의 문제점

- 첫째, 지역의 쇠퇴, 즉 개발성과의 역외 유출
- 둘째, 종속적 개발, 즉 지역의 운명이 외부의 손에 맡겨지고 있다.
- 셋째, 왜곡된 개발, 즉 소수의 선택된 부문과 다수의 소외
- 넷째, 파괴적 개발, 즉 지역의 문화적 환경적 차별성(특성)이 상실되고 있다.
- 다섯째, 불균형 개발, 즉 외부자본 유치 매력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개발이 심화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외부자본을 유치할 매력이 없기 때문에 개발대상에서 소외된다.

3. 내발전 발전

○ 기본적인 문제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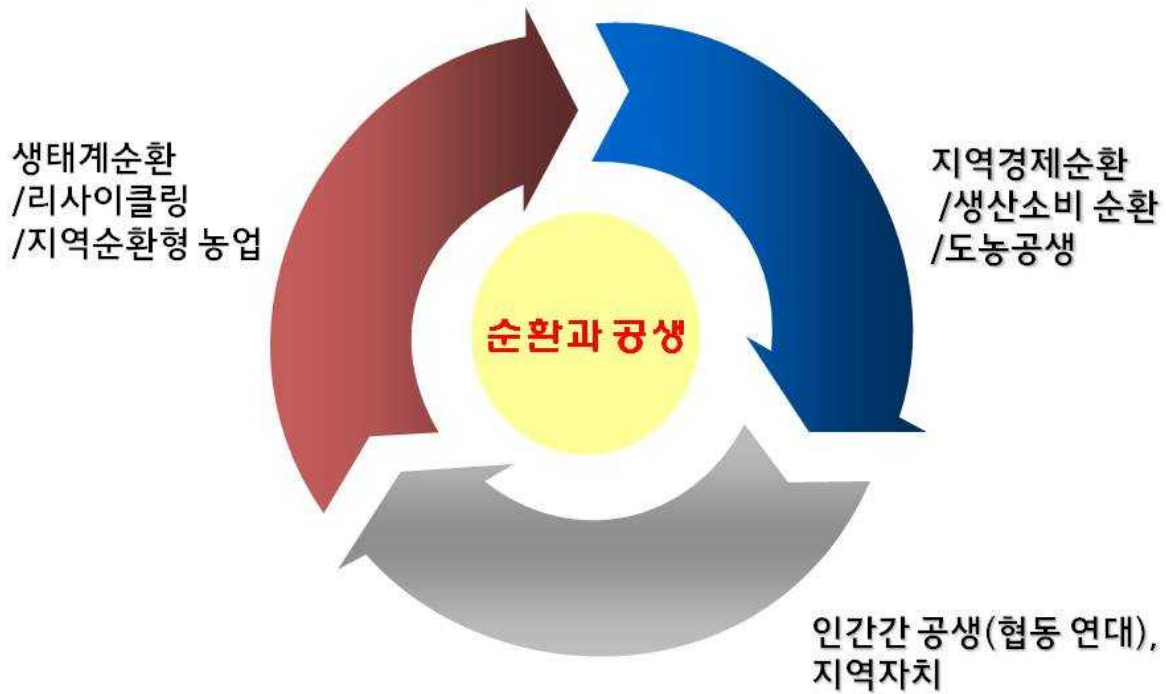
- 근대화론 비판
- 경제학 패러다임의 전환: 경제인 대신에 인간의 전인적 발전 추구
-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지역분권, 생태계 중시

첫째, 지역개발의 목표가 경제적 개발이 아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즉,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통합적 발전(Integrated development)를 추구
예) 부탄의 GNH정책

둘째, 내발적 발전은 발전의 동력을 기본적으로 지역 내에서 구함(driven from within)
지역내의 자원(자연, 인적, 물적, 문화, 환경자원)의 최대활용에 의한 발전 추진,
발전 성과가 지역 내로 순환(보전), 귀속되도록 함

셋째, 지역주도의 상향식 발전, 주민참여와 협동·자치에 의한 발전을 중시함
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에 의한 거버넌스 중시

내발적 지역 발전의 기본 원리



순환.공생의 지역 만들기 과제



참조: 부탄의 GNH정책

- **“Gross National Happiness is more important than Gross Domestic Product”.**
 - GNH Commission
- **4개의 전략**
 -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사회경제발전
 - 생태보전과 그 회복
 - 문화의 보전(문화적 정체성)과 창달
 - good governance
- **9 개의 영역(domain)과 72개 지표**
 -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시간활용(Time Use), 공동체 활성화(Community Vitality), 문화(Culture),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자연생태(Ecology), 생활 수준(Living Standard), 거버넌스(Governance)

내발적 발전과 사회적 경제

1. 지역화와 내발전 발전

○ 지역화의 의의

-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경제에 대한 대안적 경제창출**
 - 우리의 시야를 글로벌에서 지역(local)으로 전환. 지역민의 필요(needs)를 지역의 힘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경제의 건설
- **시민의 힘에 의한 지역화(localization) 혹은 재지역화(relocalization)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 지역에서 일자리와 소득기회의 창출, 식량과 에너지의 자립, 지역 서비스의 공급
 -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열풍

○ 지역화와 내발적 발전 그리고 사회적 경제

- **내발적 발전은 지역화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 내발적 발전은 지역주도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자원과 지역 주체에 기초한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의 성과가 최대한 지역 내에 남도록 하는 발전 전략
- * 사회적 경제 조직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기반으로 성립하고 발전함.
 - 초국적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여 지역화가 필요하고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지역화를 위한 유효한 경제조직
- * 사회적 경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고, 연대와 호혜의 원리에 의해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내발적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음

○ 지역의 재발견

- 지역은 주체적 존재
 - 지역은 주민들이 공동체적 일체감을 갖고 상호 연대해서 생활하는 공간
- 지역은 자립적 존재
 - 고용위기와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서 지역경제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단위로서 인식됨.
- 지역은 대안적(저항적) 존재
 - 신자유주의 글로벌 위기(경제, 자원, 환경위기의 융합)는 그 자체로는 해결책이 없음.
 - 지역에서의 실천으로부터 해결책을 모색

2. 사회적경제의 이해

○ 사회적경제 리턴즈

- 사회적경제는 19세기말 학문적으로는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실천적으로는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등장
-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및 신자유주의 체계 하의 경제위기 속에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됨
- 사회적 경제는 학문영역보다 실천영역에서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1990년 이후에는 법과 정부정책에 기초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경제 리턴즈의 배경: 경제위기

• 1970 이후의 경제위기와 사회적 경제의 발전

- 구조적 실업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섹터'로써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재인식됨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한 사회적 경제의 진화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양극화, 실업과 빈곤,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킴
 -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봉합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함
 - 사회적 경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에 머물 수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존재로서 사회적 경제에 주목함

○ 사회적경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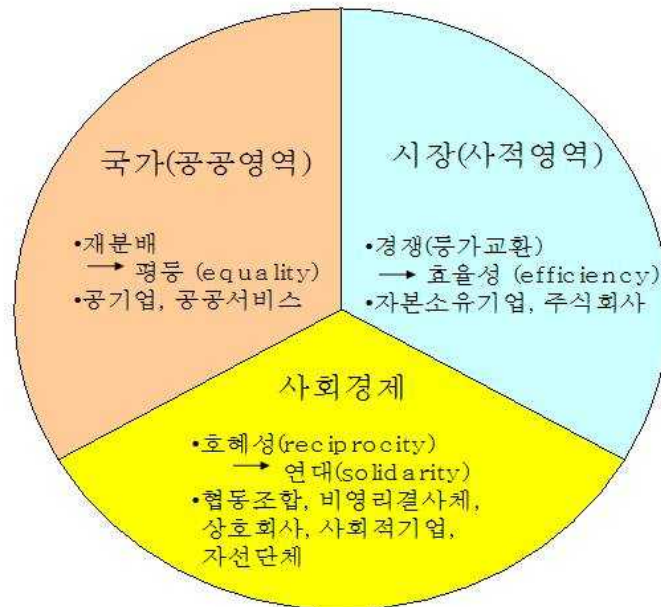
● Defourney

- ①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
 - ② 경영의 자율성
 - ③ 민주적 의사결정
 - ④ 수익의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 4개 원칙에 따른 이해당사자경제(stakeholder economy)

● 영국브리스톨시 사회적경제 정의

- It is not part of the Private(For-Profit) Sector and is not part of the Public(Government) Sector
- The Voluntary Sector, The Non-Profit or Not-for-Profit Sector, The Third Sector, The Co-operative Sector, Community Business Sector

세가지 경제 중의 하나로서의 사회적 경제



출처 : Mike Lewis, Mapping the social economy in BC and ALBERTA towards a strategic approach, BC-Alberta Social Economy Research Alliance, 2006,p.2.

○ 사회적 경제의 영역

오늘날 사회적 경제는, 전통적 사회적 경제(ex.협동조합)와 새로운 사회적 경제(ex.사회적 기업 등)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전통적 사회적 경제 조직

- 협동조합(소비자 협동조합, 생산자 또는 노동자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처럼 단일계층(혹은 단일 이해관계자)로 이루어진 사회경제조직
- 예, 이탈리아 볼로냐 협동조합/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퀘백의 데자르댕/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네델란드의 그리너리/ 우리나라의 농협과 생협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다중이해관계자 조직)

-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조직으로서 구성원(조합원)에 대한 연대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 각국별로 법적 공식조직으로 나타나기 시작함 예, 사회적 기업, 비영리조직(NPO),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퀘백의 연대협동조합

3.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일부, 그러나 갈등적 협력

- 전통적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포섭됨
 -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하나의 기업형태
 - 경제적 이익과 규모확대에만 관심. 특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협동조합의 경우. 우리나라의 농협이나 일부 생협도 여기에 포함됨.
- 사회적 경제 진영은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목적을 강조
 - 사회적 목적(지속 가능한 삶과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 시장가치에 뒤지지 않는다
 - 사회적 경제는 사회변화와 경제적 전환(경제적 민주화)을 위한 운동
 - 사회적 경제는 세계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도전에 대한 실용적(pragmatic) 대응
 - 사회적 경제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 재정립 추구

○협동조합진영의 변화

- 1980년 ICA 보고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레이드로 보고서): 세계적인 기아극복/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마련/ 보전자 사회 conserver society/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
 - “ 도시인들에게 도시는 고독과 소외의 바다. 단지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 외에 그들을 묶어주는 것이 거의 없다.... 협동조합의 위대한 목표는 드넓은 도시 내에 수 많은 지역사회를 세우고 마을을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많은 사회경제적 필요와 접목하여 지역사회 창조라는 종합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협동조합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은 이웃 사람들이 안으로 눈을 돌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견하게 하고 요구되는 서비스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레이드로 보고서 5장)

- 전통적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1995년 ICA 창설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지역사회 기여'(Concern for Community)를 명시적으로 언급
- 협동조합의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지역사회를 떠난 협동조합은 있을 수 없음: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자나 생활하는 소비자에 의해 조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곳에 사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통 욕구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외면할 수 없음
 -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속 발전을 지향
-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갖게 된) 이유
 -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지역의 위기
 - 시장/ 무한경쟁: 양극화, 실업,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삶의 질 악화
 - 국가: 복지국가의 위기와 작은 정부, 재정위기 등으로 역할을 못함
 -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함. 육아, 노인 돌봄,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비롯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는 농업과 식품산업, 주거, 문화 등 경제사회 전 영역에 걸쳐 활동함.
- =>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적 사회의 가능성 모색. / 사회적 경제의 의의(시민사회)

4. 협동사회경제의 유형(농촌지역)

유형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사회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 로컬푸드, 공공급식, 공동체지원농업 소비자협동조합 지역산업 육성(향토산업, 6차산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 마을만들기 등 지역개발 귀농귀촌 및 도농교류 활성화
공공 서비스 및 복지 협동사회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돌봄(재가서비스, 경로당, 노인일자리 등) 청소년 및 아동 돌봄(방과후학교, 아동센터, 청 소년 문화센터 등) 취약계층지원(가사, 간병, 결식가정 급식지원 등) 여성문화센터, 다문화여성센터 등 사회교육 의료생협
일자리 창출 협동사회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기업, 마을기업 등 자활사업 기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
지역 환경 및 문화 보전 협동사회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및 재활용자원 관련 사업 환경 및 경관보전 관련 사업 에너지 자립 및 순환 지역 도서관, 각종 문화센터 생태건축 농촌관광 문화공연, 문화교육 생활체육
기타 협동사회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경제의 조사,연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5. 사회적경제와 지자체의 역할

○ 대원칙

- 지원은 하되 군림하지 않는다. “鑑査는 感謝다”.

○ 지자체의 역할

-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육성과 지원
- 사회적 경제를 위한 기금 조성 지원
-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시장조성
- 사회적 경제를 위한 통계, 조사, 연구
- 사회적 경제 전문가 양성
- 사회적 경제 친화적인 정책

02

제 1 발 제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박상우(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박상우(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 이탈리아 볼로냐

1. 이탈리아 볼로냐

1) 방문목적

-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사례 이해를 통해 협동조합의 본래적 가치 확산
- 중간지원조직 방문을 통해 협동조합 지원시스템 습득
- 사회적경제의 지역화에 대한 모색

2) 지역특징

- 빨간도시 볼로냐 : 붉은 벽돌의 건물과 정치적 성향. 촘촘하게 들어선 낮은 집들과 좁은 골목길, 붉은 빛의 지붕 등 붉은 색은 볼로냐를 상징하며, 70여년이 지난 성곽 같은 건물, 또 건물과 건물로 이어지는 포르티코(회랑), 낡고 더러워도 허물고 다시 짓지 않아 고풍스런 건물 등이 많은 것이 특징임. 유럽에서 가장 많은, 가장 중요한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스타일의 기념물을 보유하고 있음. 동시에 붉은 색은 좌파 정치 성향을 나타냄. 1999년 중도우파 성향의 시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성향이 강했음. 2004년 중도좌파 성향의 세르지오 코페라티가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유럽에서 최초로 '무료대중교통' 개념의 정책을 도입 볼로냐시에서 시험한 바 있음.
- 현자들의 도시 볼로냐 : 볼로냐 대학교 영향
- 뚝보들의 도시 볼로냐 : 볼로냐의 기름진 음식 비유
- 농구도시 볼로냐

<볼로냐에 대한 통역의 설명>

- 볼로냐에는 학생들 비율이 높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진보적인 비율이 이탈리아 내에서도 강하고 다른 도시에서는 대모를 많이 안할 때 볼로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대모도 많이 하고, 그런 진보주의적 성향 때문에 중도좌파나 중도당이 시장선거에서 선택이 됩니다.
- 볼로냐대학은 1개 인데, 그 안에 많은 학부가 있습니다. 학생이 많고 북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와서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것이 한편으로는 사업거리가 되는 겁니다. 시내 중앙 안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살지 않고 다 빠져나와서 살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볼로냐대학에서 경쟁률이 센 분야는 약학, 경영학, 법학 등이 유명합니다. 피렌체가 철학이나 법학이 유명합니다. 이탈리아는 한국처럼 순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들어가는 것은 모든 친구들에게 열려있지만 졸업하는 시스템은 아주엄격해서 졸업하는 것이 대부분 대학졸업이 5년인데 평균 7-8년 정도 걸린다. 마지막에는 졸업시험 때는 졸업논문을 제출합니다. 제가 볼로냐 살면서 대학생 5명이 살았는데, 이탈리아 5명이 사는 방법은 한 아파트에서 5개방에서 각자 살면서 공동공간은 화장실과

주방으로 사용하고, 한국 돈으로 그 당시 유로로 30-50만 원 정도 됩니다. 8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더 올랐을 겁니다. 대학생들 보편적으로 강의가고, 시험기간이 되면 씻지도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 평소는 월-금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놀고 합니다. 대마초는 이탈리아에서도 불법인데 집에서 대마초도 키우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경우 택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으면서 대화를 많이들 하는데, 대화를 해서 나오는 이야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나가는 것이 예를 들면 슬로우 푸드의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결과적으로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슬로우 푸드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계기 자체가 대학생들이 모여서 현재 돌아가는 사회적 관점, 정치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모은 다음에 그런 자유로운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 구체화하는 과정, 슬로우 푸드의 운동의 시초가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해서도, 사회적서비스도 이탈리아가 먼저, 협동조합 말고 사회적협동조합이란 것이 먼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실질적으로 1970년 말 부터 법제화된 것은 80년대 CSS나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각자 벌써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있기 전부터 자생적으로 필요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었고, 그런 것이 실체화되면서 법이나 조항들이 따라 붙게 되었다. 그런 것에서 이탈리아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남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밑바탕에는 문화의 근본적인 소스가 이탈리아에 남아있다. 르네상스, 피렌체, 비잔틴 문화, 로마문화, 그리스문화, 아랍문화 등이 남아있어 결과적으로 사고의 유연성이 되어 그런 것에서 꼬집어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탈리아가 건축, 패션, 음악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부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 이탈리아 철도시스템은 운송수단의 중심으로 잘 연결되어있어 철도역이 시내와 근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로냐가 한국의 천안 같은 중부, 북부, 동부, 서부를 연결하는 곳 같은 곳 입니다. 볼로냐가 운송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볼로냐가 중공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운송의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도시의 이미지는 중공업관련 중소기업(부품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 2000년대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변화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재도약하기 위해서 문화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벤트, 볼로냐의 재발견, 한국하고 2006년 대한출판협회 통역할 때 한국의 주빈국으로 두면서 각 나라하고 문화적인 교류를 많이 시도하고, 어찌 보면 협동조합도 1차, 2차에서 벗어나서 3차 협동조합 즉 서비스협동조합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협동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청소협동조합 등 많은 것이 있지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3차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3차 산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가족제품과 수공업은 피렌체가 더 유명합니다. 피렌체는 토스카나 주가 원재료가 좋은 소가 있습니다.

2. ERVET 리얼서비스 센터

1) 방문목적

- 지역개발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지원시스템을 보고자 함

2) 에르벳의 성격

- 공공부문(에밀리아 로마냐 주정부)과 민간부문(기업협회)의 공동참여로 1972년에 설립된 민·관지역 혁신기구(Agency). 에밀리아 로마냐 州法에 근거함

3) 에르벳 산하 리얼서비스센터

- 지역 내 중소기업형태로 존재하는 섬유/의류, 세라믹, 농기계, 신발/가죽, 건축부문의 지원조직. 에르벳이 산하조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생적으로 존재해 오던 가 분야/영역별 지원조직을 에르벳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의 조직임
- 1990년대에 이르면, 각 분야의 중소기업이 리얼서비스센터로부터 독립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됨으로써 행정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리얼서비스센터의 관리조직으로서 에르벳의 존립 필요성을 재검토하게 됨
- 따라서 행정과 민간 복합조직에서 행정 중심의 조직으로 성격이 개편되게 됨
- 현재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밀리아 로마냐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설명이 있었음

4) 에르벳 현재의 역할

- 주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제언: 행정과 기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서비스 제공: ITC(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문화 관광정책에 대한 지원, EU의 관련기금 Support
- 국제협력: EU 혹은 EU 이외지역국가와의 협력증진
-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Social innovation, Social Economy 관련 업무 지원

* 에르벳과 에밀리아 로마냐 주와의 관계: 3년 단위로 주정부와 협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있음. 즉 3년간의 역할(계획)을 책정하고, 그 속에서 1년단위의 역할/계획을 수립함. 연간 약 700만 유로를 지원받고 있는데,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지원규모가 삭감되고 있음

5) 주요 방문 내용

- 에르벳은 1972년 에밀리아 로마니아주에서 시작된 에이전시임. 1972년 시작된 이 에이전시는 공공과 일반이 믹스된 형태로 공공적인 부분은 에밀리아 로마니아주, 일반적인 부분은 기업협회적인 부분이라고 함. 그 당시에 주법에 의해서 구체화되었고 1972년에 중앙에 법제화가 되었지만, 주법에 의해서 에르벳이 탄생하게 된 것임. 에르벳은 첫 번째 기간에 중소기업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발전되었음. 주 에밀리아 로마니아 주와 지역에 있는 시하고 유기적관계의 목적은 중소기업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첫 번째 에르벳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음
- 리얼 센터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줌. 그 당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발전하게 되었지만 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그 필요성이 국내와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그 당시 분야별 섬유, 세라믹, 신발에 각 분야별 기업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지역에서 에르벳을 통해 로컬에 두어서 지역에서 구체화 하도록 되었다고 함. 이런 형태는 주와 일반기업들이 합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 에르벳은 결과적으로 에밀리아 로마니아 주가 가

지고 있는 우회적인 도움을 통해서 에르벳이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임.

- 세 번째 단계 안에서는 일반 시나 지역들이 독립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에르벳이 두 번째 기관에서 에르벳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산업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독립하였고,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함
- 에르벳은 현재 믹스형태에서 100% 공공형태의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 현재로는 공공기관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볼로냐 시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부를 위한 일을 하고 있음. 현재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지역정책발전을 위한 것임.
- 지역정책발전 중에 포함된 것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발전들이 있는 것들, 에르벳의 성향은 기업에 직접적의 관여를 하고 있지 않고, 중간역할로써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고 함.
- 또한 에르벳은 관광정책, 창조적 문화정책, 유럽연합관련해서 정책적인 서포터하고 있음. 특히 유럽연합기금 프로그램실행에도 서포터를 하고 있음. 그리고 유럽연합이 아닌 제3국에 협력관계에 대해서도 서포터하고 있음.
- 그리고 사회적혁신(social innovation)과 복지분야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함. 특히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에밀리아 로마니아와 협상하는 일을 하고 있음. 협동조합이라든지, 제3분야 즉 자원봉사와 같은 분야 대해서 함께 협력사업을 진행 중임

6) 시사점

- 충남의 경우, 도내에 위치하는 다양한 기업/민간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에르벳/리얼서비스센터와 같은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 현재 기능이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에르벳의 경우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한 경험이 있음. 충남도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서천이나 천안, 홍성과 같은 지역을 타겟으로 하여 지역의 자산이 어떠한 지를 파악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함. 이러한 지역개발 사례를 모범사례로 확장한다면 사람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이해시키는데 있어 보다 용이할 수 있을 것임.

3. 레가쿱 협동조합연맹

1) 방문일자

- 2012년 11월 7일

2) 방문목적

-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의 확장에 있어 레가쿱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
- 특히 레가쿱의 연합체 구조에 대해 확인하고 옴

3) 레가쿱 현황

(2010년 기준)

회원조직	매출(유로)	조합원수	직원수
15,200	568억(약 91조)	9,550,699	485,541

4) 역할

- Lega coop은 협동과 상호부조(공제)의 발전, 회원조직의 경제적, 연대적인 관계를 촉진하며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의 보급을 고무함. 현재 15,000개의 회원조직 연합체로 소매유통, 건설, 농식품, 서비스, 제조업에 다수 분포, 보험-금융 부문에서 중요한 기업체를 창출함.
- Lega coop의 핵심사업은 새로운 조합의 설립을 장려하고 도와주는 것임. 협동조합 사업 아이템들을 제공하고 법적 설립요건들을 갖추는데 도움을 제공함.
- 모든 협동조합들이 수익의 3%를 협동기금으로 적립하면, Lega coop에서 관리하며 새로운 협동조합 또는 자금이 필요한 협동조합들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금 역할 수행
-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끔 협동조합 교육 실시(어린이 교육 포함)
- 협동조합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화할 수 있는 연구, 일반기업과 차이에 관한 연구 등
- 건설 및 도시계획 : 건설협동조합들의 도시계획 전략 수립
- 사회정치 : 법적, 정치적인 압력의 행사, 정책 제언 등
- 국제교류 : 국제협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참여

5) 조직구조

- Lega coop의 조직구조는 자치-자율적인 부문조직(Sector Associations) 활동과, 광역(주) 및 기초지자체별(현, 시) Lega coop 조직활동으로 구분됨.
- 각 협동조합의 대표로 구성된 총회가 3년마다 개최됨. 총회에서 30~8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의장이 선출됨. 대의원 중에 이사회가 결성되어 중요 사안들에 대한 의결이 진행됨.
- Lega coop의 본부는 로마에 있으며, 각 지역별 지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환경 속에서 협동조합의 보호와 지원활동에 주력함.
- Lega coop은 ICA 및 ICA 유럽지역위원회이며, 2006년 11월 맨체스터에서 결성된 가장 큰 유럽의 협동조합대표조직인 '유럽협동조합'(Cooperatives Europe) 회원조직임.

6) 레가쿱 에밀리아 로마냐주

회원조직	매출(유로)	조합원수	직원수
1,550	300억	1,528,859	156,059

- 조합원 중 1,286,512명이 생협 조합원(에밀리아로마냐주 인구의 30%)이며, 243,347명은 다른 부문의 협동조합 조합원임.

7) 레가쿰 볼로냐

회원조직	매출(유로)	조합원수	직원수
300	32억(4조8천억원)	1,000,000	

- 유럽연합 중 가장 소득이 높은 5대 경제도시 중의 하나로서,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수도’라 불릴 만큼 130만 인구 중 100만명의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1/10 수준인 35,000명이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음. 볼로냐에만 300여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있으며, 볼로냐의 주요기업 50개 중 15개가 협동조합으로 전체 협동조합의 매출규모가 연간 32억 유로 수준임.
- 볼로냐의 협동조합은 국내총생산의 30%(로마냐 주의 모든 생산경제활동의 1/3)를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생산량은 28,297유로(4,200만), 임금은 국가 평균의 2배 수준이며, 실업율은 3.1%에 불과함. 인구 100명당 회사의 수가 10.34개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들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협동조합	매출(유로)	조합원수	직원수
생 협 Consumers	CONAD	2,700백만		8,030
	COOP	2,801백만		12,513
농식품 Agrifood	GRAN TERREE	221백만		398
	GRANDI SALUMIFICI ITALIANI	500백만		1,291
	GRANAROLO	900백만		1,727
	APOFRUIT	150백만		2,106
	CCC	1,250백만		250
건축 C&M Construction & Manufacture	CMB	632백만		815
	CMC	700백만		5,795
	UNIECO	650백만		590
	SACMI	1,172백만		3,658
	COOPSETTE	456백만		1,034
사회적협동조합 Social	CADIAI	30백만		1,216
사업서비스 Services	MANUTENCOOP	1,150백만		16,500
계		11,676백만	0	37,173

8) 질의응답 내용

<레가쿰 볼로냐의 현재 현황에 대해>

- 레가쿰은 정책제안, 정보제공, 서비스제공, 보호부분을 제공하고 국제관계 협력서비스관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에밀리아 로마니아 주에만 하위단계로 하나의 레가쿰이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에밀리아 로마니아가 전쟁 후에 낙후된 지역 중 한 도시였기 때문이라고 함. 전쟁을 겪고 가난 때문에 많은 협동조합들이 많아지고, 연대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고된 노동자 예를 들면 건설부분에 노동자, 농업부분에 농민들, 그 다음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더 싸게 사려고하는 입장 등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연대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임

<후속세대 교육에 대해>

- 이탈리아 역시 청년실업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었음. 지금현실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청년실업에 관한 요구라고 함. 그래서 청년실업에 관한 실행으로 협동조합차원에서 청년들에게 가까이 가서 대학교나 11월에 모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등 그런 활동도 하고 있음(충남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멜라쿱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에 관련된 것인데, 쿠페라테라는 웹사이트가면 청년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영문으로 되어있다고 함. 그런 고등학교 가서 15~17살 아이들에게 협동조합 기업을 만드는 교육도 하고 있고, 처음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친숙한 교육 협동조합에 대해 친숙하게 하고 때로는 경영도 하게 해서 협동조합아이디어를 젊은 친구들한테 얻는 등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함(후속세대를 키우는 이러한 노력들은 충남의 교육청과 협조 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즉 첫 번째는 아이들 교육관련 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에 대한 것입니다.

<조직구조에 대해>

- 레가쿱은 분야별로 국가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각 조직에 스며들게 되어있다고 함. (조직을 수직적인 체계로 이해하는 한국정서로서는 좀 이해가 힘든 이야기임)
- 예를 들면 협동조합 조직 체계가 국가 조직하고 연결된 협동조합도 있고, 콘프쿱같은 경우는 국가와 지역까지 관계가 있고, 다 다양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함.
- 사회적협동조합이 강한데, 이 것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국가, 지역, 볼로냐)
- 협동조합의 조직구조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아주 자유로운 가입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웠음. 이는 협동조합 자체에서 권력의 집중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 짐

<새로운 사업영역>

- 레가쿱 볼로냐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주택건설협동조합을 꼽고 있음. 주택하우징이라는 부분이 자본금이 많이 모이고 그 모인 돈이 채투자, 회원으로 돼서 집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돈들이 남아있고 그 돈들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런 요구들. 예를 들면 주택을 조합원들이 태양열을 설치한다든지 리모델링 서비스라든지 어쨌든 그런 서비스, 자본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협동조합, 하우징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목적임. 주택과 관련하여 또 다른 서비스는 이민자들과 조합원들하고 집을 중간에서 연계하는 부분, 그래서 이민자들에게 장기간 렌트해서 살아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든 이러한 하우징 서비스도 하고 있다고 함. 또한 사회적협동조합과 주택협동조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서비스 중 하나가 예를 들면 20년 동안 살고 있는 거주자가 새로운 그룹의 이민자들과 서로 함께 묶일 수 있는 그러한 중간 역할자를 자처하고 있음. 이렇게 레가쿱에서는 또 하나의 변형된 형태로써 사회적협동조합과 주택협동조합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고 있었음.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서비스를 찾아

가는 것임. 예를 들면 복지 관련된 부분이 예전에는 사회적협동조합만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주택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지, 아니면 아이들 탁아소를 만든다든지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또 다른 사례로 양봉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해주었음. 이는 멜리츠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친환경 관련된 식품유통회사, 즉 양봉협동조합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더 커진 회사로 변경된 모습으로 발전시킨 것임. 또한 코나피라는 업체는 생산양봉협동조합에서 유통관련해서 중앙아메리카나 제3국가와 공정무역도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유통에 대한 힘을 키운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케이스임. 즉 협동조합이 세계시장으로 확장하여 국제화된 케이스를 설명하였음.

4. 리자나멘토 주택협동조합

1) 연혁

- 볼로냐 지역에 있던 후작 리비오 잠베카리는 볼로냐 건축 노동자 협회 창시자로 1860년부터 노동자 협회를 약속하였다. 그 다음 해에 “남성 노동자 단체”를 결성하였고 이 단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많은 다양한 도움을 주는 중요한 협회로 발전해 나갔다. 몇 년 후, 협회는 첫 활동으로 생활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점을 열고, 병이 든 노동자를 지원하고, 연금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며 노동자의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하면서 은행의 대출을 지원해 주었다.
- 그 후에 노동협회는 또 하나의 협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조직을 1881년에 만들기 시작한다. 1884년 3월 23일, 건축업과 노동자주택을 위한 협동조합단체가 결성되고 첫 회장으로 프란체스코 마세이가 선출되었다. (주택협동조합 Risanamento 의 시초로 여겨짐)
-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토지 매입에 성공하며 1887년 잠베카리 가에 주택조합의 건물(주택)을 만들게 된다. 이 건물은 필요한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주택조합 회원의 거주지로 되어있다.
-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환경조성에 맞는 건축이 실행되게 하고 계획된 내용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 다음으로 주택조합은 볼로냐 외곽지역의 거주지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빈공터와 텃밭으로 사용한 지역에 516개의 아파트를 만들어 새로운 주택지역을 만들어 낸다.
- 파시즘 시대에서도 주택조합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며 부동산은 현존하는 건물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 128년이 지나면서 주택조합은 초창기의 미션을 잃지 않고 엄격하게 초심을 지켜왔고 두 번의 세계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손해를 경험하면서도 조합의 유산은 계속 증가해 나간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법규를 따르면서 유산은 2,223개의 주택으로 늘어나고 109개의 지방 상점, 416개의 자동차 정비소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런 유산은 정부의 부동산법, 자유 시장에서의 규범 준수 등 청렴한 방법을 통한 회원들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것이다.

- 주택조합이 성공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기술적이며 재정적으로 현재의 거대한 유산을 최상의 관리와 재구성을 위해 끊임없는 조합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끌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주택 건축 계획에 협동하여 참여함으로써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성공의 비결은 협동조합의 정신을 초대의 설립 때부터 이어 받아 주택조합이 항상 조합의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잃지 않은 것이다.

2) 조직구조

- 15명의 상임위원이 운영
-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
- 조합원은 주택을 임대받은 2,223명과 임대받지 못한 6,972명으로 구성

3) 운영

- 볼로냐시의 초기 출자금과 조합원 투자로 주택협동조합 설립 및 기금운영
- 초기에 볼로냐시에서 토지를 제공
- 임대받은 주택은 임대인이 사망시까지 임대되며, 조합원의 자격은 가족에게 승계가 가능하고 연간 대략 100채의 아파트가 재배정
- 조합가입 순서에 따라 주택이 배정되며, 10년 단위로 5~7% 정도의 임차료 상승
- 매년 80~90가구 정도 주택이 보급되며 입주자의 60%는 노년층에 해당
- 조합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
- 현재 2,223개의 주택(총 연면적 140,000㎡), 109개의 상가, 416개의 자동차 정비소 운영
- 월세수입 700만 유로인 반면, 지출은 600만 유로로 100만유로가 적립
- 2003년부터 10년 마다 5%~7%의 월세가 인상됨

지역	볼로냐 일반 임대료	리사나멘토 임대료 (Corrisposta)
다운타운	576유로/월	361유로/월
중간지역	532유로/월	278유로/월
외곽	501유로/월	256유로/월

4) 2010년 재정관련 수치들(백만 유로)

- 수입 : 15.35
- 운영비용 : 9.14
- 영업이익(세전) : 6.21
- 순익 : 3.76

5)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만족할 수 없는 부분, 문제점들은 (2200 여개의 아파트들이 (리사나멘토의 자본금이기도 하구요)있는데, 한편으로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낮은 임대료(코리스포스타)를

책정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그러한 구조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리사나멘토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중의 하나가 ‘만약에 당신이 100이라는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소득상승률이 5%된다고 하겠습니다. 한달에 105유로를 받습니다’
-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 임대료에 대한 실제적인 시장 소득률보다 임대소득률을 적어도 같게 한다거나 (임대료의 상승률도 같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낮게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임금상승률보다도 보편적으로는 더 높은 임대료 안에서 가격의 상승률을 적용한다던지 하는데, 리사나멘토는 같거나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자본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증 담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2,300여개에 해당하는 현재의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고, 이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들이 또 나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건물을 짓더라도 그것들에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의 폭이 좁아져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현재 2,300여명의 임차인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료) 받지 않은 조합원이 7000여명으로 파악 되어 있는데, 여기 속하지 않은 사람 중에 이중조합원(이미 임대를 받은 사람의 자녀조합원)이 아닌 순수 집을 원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니 2,223명에 해당합니다. 2000여 명 정도가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2,000개의 또 다른 집이 필요하고, 토탈 4,000개의 집이 있어야 우리 조합원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개의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이탈리아의 땅은 작고 지대가 비쌉니다.
- 이렇게 첫 번째는 지대의 문제, 두 번째는 투자 능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던 은행 대출금, 여유분에 대한 문제의 한계, 순환되어 또다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문제, 2,000개의 건물을 짓는 데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 시사점

- 레가쿱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콘프쿱을 상징하는 하얀색을 표현하면서 현재는 빨간색도 하얀색도 아닌 핑크색 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130여년간 원칙스러움을 지켜온 조직의 자부심과는 별개로 협동조합 운동이 점점 되물림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표현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음. 거리에서 8,90년대를 보냈던 한국의 민주화운동세대와 스펙 쌓기를 통한 취업으로의 올인을 하고 있는 현재 젊은 세대와의 단절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였음.
- 리사나멘토라는 주택협동조합 역시 기본 토대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기부와 지지로 이뤄진 것임. 주택가격의 많은 부분을 토지가 차지하게 되는데 리사나멘토는 이 토지를 귀족 또는 지자체로부터 불하받거나 장기무상임대를 받아 건축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시세보다 절반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었음. 주택의 해결은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할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의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고 투기와 재산증식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와 분명히 대비되는 것이 있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큰 것임. 토지의 공개념화화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급진스러운 것인지 고민이 됨.

- 9천명이나 되는 조합원을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하고 있을까 하는 우문을 할 수 밖에 없음. 하지만 이 도시는 안 하던 것을 하기위해 사람을 조직하고 학습시키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 두 번의 전쟁과 사회주의 정권을 경험한 이들은 협동과 합의라는 단어에 너무나 익숙한 것임

■ 이탈리아 트렌토

1. 이탈리아 트렌토

1) 방문목적

-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사례 이해를 통해 협동조합의 본래적 가치 확산
- 사회적경제의 지역화에 대한 모색
- 충남 사회적경제 연합체(네트워크) 방향 모색

2) 지역특징

- 트렌토 지역은 이탈리아 최북단에 있는 인구 50만의 작은 州이다. 이탈리아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2%, 70%가 해발 1천m 이상, 75%가 산림인 알프스산맥 끝자락에 위치한다. 지리적 악조건 속에서도 자발적 협동조합운동을 통하여 지방재정자립도 100%를 달성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의 대부분은 농지이며 공장들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가공공장이 대부분이다. 지역 내에 3개의 언어(이탈리아어, 독일어,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룹들이 존재하고, 전 세계 60개국에서 3만 3천여 명의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나 조화롭게 살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민자들과 빈민자들의 거주지인 슬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트렌토에는 그러한 슬럼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흥미로운 점은 트렌토의 성장이 외부자본의 의존하지 않고 농업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적 생산, 가공이 지역의 경제를 이끌고 있으며 협동조합방식의 소비와 금융이 자본의 외부유출을 막아내고 있다.
- 트렌토 연맹은 트렌토 협동조합 연맹의 가치인 Persona(사람), Economia(경제적 가치), Responsabile(책임감), Solidale(연대), Operosa(근면성), Non Speculativa(비영리), Etica(윤리)를 계속적으로 잘 지켜나가고 있으며, 모든 협동조합의 매출액의 3%는 협동조합 연구 등 가치적인 것에만 투자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2. SAIT 유통협동조합

1) 방문목적

- 유통협동조합 연맹이 어떠한 구조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아봄
- 유통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봄
- 유통협동조합 내 조합원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봄

2) 현황

- 1899년 11월 23일 설립자인 Emanuele Lanzerotti에 의해 지역 사회의 상호 지원의 역할을 목적으로 생겨났으며 트렌토 지역의 협동조합 상호간의 공동 구매 및 공동 판매를 목적으로 생겨남
- 1899년부터~1970년까지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 1945년~1970년의 시기에는 식품 및 가공분야를 비롯한 생산 제품이 SAIT의 브랜드로 제조되고 소매점의 네트워크를 구성함. 1971년 총회를 통해 현대적이고 효율화된 유통시설을 갖추고 매집과 유통하는 것과 함께 상품의 진열, 매장위치, 물류시스템, 정보관리, 마케팅 등을 산하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1993년 사이트가 소속된 상위연맹인 트렌토협동조합연맹은 고유한 브랜드 및 독점적인 마케팅을 인정받고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맹(REGA)에 가입함

3) 목적

- SAIT는 회원의 이익과 협동조합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협동조합 운동은 지역 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며 조합원에 대한 정직과 정보공개 품질에 대한 약속 및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여 운영되고 있음

4) 컨소시엄으로서의 SAIT의 핵심 역할

- 각 매장에 대한 상품 제공: 전체 사업 중 그 비중이 점점 감소
- 소비자 교육
- 경쟁관계에 있는 대형유통망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 판매장에 대한 지원
- 새로운 판매장 개설
- 기존 판매장에 대한 리모델링

5) SAIT의 강점

- 다양하고 많은 회원들이 존재함. 외부와 단절된 지역적 혹은 지리적 특성이 있음(트렌토 지역 자체의 강점)

6) 주요 방문내용

<사이트 현황에 대한 설명>

- 현재 사이트는 300개의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조직임. 1899년에 사이트가 탄생하고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30개의 판매점으로 유통판매점으로 시작해서 현재로는 300개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고 함. 300개의 판매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들은 일반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 식품 다양한 품목들을 전부다 취급하고 있음. 우리가 설명을 받은 장소는 2010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곳이고 이곳에서 원스탑 원서비스 하나의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게 공산품 채소 고기류 등등의 창고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함.
- 지금 18개의 직판매점을 구성되어 있고 300개의 판매점이 있는데 그 중에 18개는 여기 사이트에서 직판매점이 있고 300개의 판매점의 장들은 위원들의 선거에 의해서 각 뽑히게 된 사람들이 판매점의 점장으로 있게 된다고 함. 현재 700명의 직원들이 있고 사이트에는 300명은 판매망과 관련된 직원과 그 외적인 직원들은 여기에서 일하는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 그 남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함.

<조직형태에 대한 이해>

- 300개의 판매점 안에 106개의 꿈 매장이 존재함. 이는 협동조합 단체를 뜻함.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상황을 결정할 때 이 자리에서 15명의 위원 대위원, 106개의 가맹 꾸베라디아 소찰레 대한 사회협동조합 디렉터들 및 그 하위의 300개의 매장 지점들의 점주 그렇게 해서 300개의 뿐더 판매점 106개의 협동조합 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구성되어 있는 대 위원 15명 그래서 여기는 15명의 대위원이 모여서 결정 의회의 결정이나 정책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함
- (사이트의 역할로) 상품 제공이라는 거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을 세우고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판매점에 그 역할에 대한 것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함. 대신 소비교육이라던지 아니면 경쟁관계에 있는 예를 들면 다른 큰 대형 유통망 하고의 관련되어있는 전략적인 부분을 세운다던지 그런 쪽으로 지금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음. 어시스트 역할도 수행하고 때로는 기금을 가지고 새로운 판매점을 여는데 도움을 주거나 기존에 있는 판매점에 대한 새로운 리모델링이나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을 보조해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이트의 역할로 이야기 되고 있음

<협동조합으로서의 의미>

- 이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협동조합이 왜 존재하냐고 묻자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면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조그마한 300명이 사는 마을에도 협동조합 소매점이 있다고 강조함. 이것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이렇게 소규모의 마을에도 협동조합은 들어가고 이들의 적자는 협동조합 연합체에서 보전해주는 것을 설명함
- 또한 협동조합의 강점에 대해서도 설명함. 사이트의 강점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 어찌보면 강점이고 두 번째에는 회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우리 제품을 사주는 사람이 있는 거 세

번째로는 지역적인 다른 데가 안 들어 올 수 있는 제한적인 협소한 것이 장점이자 단점임. 한편으로는 까르푸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라고 강조. 왜냐하면 작은 소매점들을 없애고 하나의 중심으로 만들자니까 노인들이 물건을 사기위해 50-60km 와야 하고 먼 거리로 와야했기 때문임.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협동조합형 직영점 소매점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함

7) 시사점

- 우리의 경우, 영세한 개별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한 유통 조합을 만들 수는 없을까? 현재 사회적기업통합지원기관에서 이러한 역할/작업을 기대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경남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에서 추석맞이 상품 기획전을 한 적이 있음
- 품앗이 생협에 대한 역할 강화. 유통협동조합 연맹까지는 아직 무리겠지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보내고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필요함. 충남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고민을 해 나가야 함

3. OECD LEED

1) 방문목적

- OECD 다른 센터에 비해 트렌토센터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살펴봄
-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알아봄
-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봄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어떠한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2) 센터의 목표

- 현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정책 권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교연구와 연구의 결과를 사용하여 지역수준에서 공공정책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음.
- 전세계에 걸쳐 지역경제 및 고용개발에 혁신을 촉진.
- OECD 회원 및 비OECD 회원 국가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경제 및 고용 개발 전략의 평가 및 능력 개발.
- 정책 입안자, 지역 개발 실무자와 과학과 지역사회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전문 지식과 OECD 회원 및 비회원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음.

3) 센터의 활동

- 확인요구사항을 충족 할 수 있는 OECD의 지도하에 학습을 통한 지역개발 정책결정자와 실무자를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
- 그들은 이러한 이론 강좌, 그룹작업 및 워크숍, 연구를 통하여 선택한 경제 및 정부 관계

자들과의 회의 등의 방법,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함.

- 세미나는 15명~60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1일~5일간 지속 할 수 있음. 그들은 참여국가 또는 이탈리아에서 OECD 트렌토(Trento) 센터에서 개최 할 수 있음.
- 트렌토(Trento) 센터는 7월의 마지막 둘째 주에 트렌토(Trento)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지역 개발여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OECD LEED 프로그램의 검토 프레임 워크 내에서 조직 활성화를 통해 정책평가, 공급 및 정책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통해 참여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함.
- 보고서를 준비하는 각 참여 국가나 지역, 이에 대한 1)배경분석 및 현장작업 임무에 따라 국제적인 좋은 관습 비교, 2)OECD 국가의 모델을 학습, 3)현재의 정책접근 방식의 강점과 약점의 분석 4) 구체적으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세부정책과 권고사항. 검토는 파트너 기관과의 합의 세미나 및 회의의 수에 따라 6-9개월에서 수행됨.
- 지역 및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구성된 워크숍 및 컨퍼런스에서는 모범 사례의 교류를 촉진, 지역개발과 고용정책 및 전략 공유.
- 연구는 OECD LEED 프로그램의 연구 프레임 워크의 트렌토(Trento)센터 양식에 의해 수행.
- 지역개발과 고용정책 및 전략에 대한 지식과 비교를 촉진.

4) 주요 방문내용

<사이트 현황 확인>

- OECD는 지역발전 관련된 센터이기도 하고, 트렌토의 조직이 아닌 국제조직으로서 34개국에 있고 한국에도 있다. 파리에 본사가 있고 거기에 2,500명 직원이 있고, 4개의 외부 센터가 있음. (워싱턴, 도쿄, 베를린, 멕시코에 각 하나). 기관조직하고의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그쪽에 놓여있는데 유일하게 트렌토라는 도시에 한 개의 센터가 빠져나와 존재함.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은 앞에서 (말한) LEED프로그램이란 것은 지역경제, 고용발전에 대한 프로그램 연구이라고 함.
- 이 OECD는 11개의 파트로 조직되어 있음. 경영, 환경, 과학 등의 부분임. 분야별로 사람들이 지역발전, 중소기업들에 대한 발전연구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트렌토라는 곳이 연구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음. 그 안에서 다섯 개의 분야로 또 집중되어지는 파트가 있는데,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창조적사회경제라는 분야, 중소기업발전분야, 관광지속분야, 거버넌스 분야임.
- 트렌토에서 하는 일은, 파리하고 공동작업을 하는데 OECD의 클래식한 부분, 분석적인 부분이라고 함. 예컨대 책-사회경제에 관한 자료- 분석 등이다. 또 엠마 박사가 제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것처럼 정책적인 부분에 review(분석자료 제공)를 하는 일도 하고 있음.

- capacity building(역량강화)-트렌토에서 하는 작업은 공공과 협회나, 일반 사업체에서 만들어진 관계적인 부분에서 트렌토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료를 제3자에 제공한다거나,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예로서 트렌토가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예를 들자면, 30~35의 그룹이 이곳에 오게 된다.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현장담당자 또는 전문가일수도 있다. 3~5일 동안 머물면서 이곳에서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옥스가 제안을 하기도 하고 옥스가 가지고 있던 경험적인 데이터 등을 가지고 제안을 하기도 함.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본처럼 ‘이것이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문제와 해결을 찾아가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함. 그래서 그 논의들에 대한 테마들은 결과적으로 지역발전 스킬에 대한 부분,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 등으로, 앞서 말했던 섹터 안에 있는 세부 테마들이 논의되게 되는 것임. (충남에서도 이러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됨. 특히 사회적경제의 후속세대나 활동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트렌토 모델의 전파>

- 트렌토모델을 전파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트렌토 모델이라는게 전체를 옮겨서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복합적인 예로서 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함. 예를 들면 정책, 이노베이션 정책분야 아니면 사회 정책이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트렌토를 벤치마킹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고 함. ‘통째로 트렌토를 옮겨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트렌토를 벤치마킹 하시는 것을 권하는 것임. 세부적인 분야들이 있다. 이 센터에서도 이태리 안에 두 개의 협동조합 모델이 에밀리아 로마냐하고 트렌토라고 이야기 함. 이렇게 큰 틀에서의 모델을 두 개로 바라보고 있음. 협동조합은 큰 틀에서는 같으나, 조금 다른 부분들의 성향에 대한 모델로서 이야기 하는 것임. 예컨대 남아메리카쪽에는 트렌토의 협동조합모델을 사회발전이나 경제발전 분야 쪽에 소개하고 있다고 함.

<지역개발과 사회적경제>

- 다음으로 지역개발이 OECD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데 사회적경제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많은 대안 중에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지 질문하였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 절대적인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응답함. 절대적이라고 쓸 수는 없고 역사적인 것이나 근원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트렌토의 경우 이런 모델이 잘 적용될 수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협동조합이나 다른 경제모델들이 결과적으로는 동등한 관계로 가야한다고 본다 고 함. 즉 다시 말해 사회적경제 시스템도 기존의 경제체제 내에서 잘 정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음. 이는 어떤 것이 더 낫다 못하다가 아니라, 절대적인 모델이 아니라 다른 모델로 변형하고 이행시킬 수 있는 하나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임.

- 세계 금융위기 이후 LEED의 역할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질문함. 이에 대해서는 OECD가 변화하고 있다고 응답함. 어쨌든 이러한 트렌드-자본주의 문제로 인한 패러다임의 전환-들로 인한 요구에 의해 OECD의 목적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4. 트렌토 협동조합 연맹

1) 방문목적

-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에 대해 벤치마킹
- 협동조합 지원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탐색

2) 현황

- 1870년~ 1888년 사이 약 2만 4천명이 가난을 피해 트렌토 지방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함. 이에 지역 경제는 많이 힘들어졌고 이를 지켜 본 DON LORENZO GUETTI(신부)가 목화 생산자와 함께 1890년 최초의 소비자 협동조합을 설립함.
- 1892년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하였으며 이는 가난과 기근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창립하게 된 것임. 1895년에는 트렌토 협동조합 연맹이 창립하였음

3) 연혁

- 1870년과 1888년 사이 2만4천명이 트렌토에서 미국으로 가난을 피해 이주
- 1890년 ~ 1892년 소비자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은행 설립
- 1890년 ~ 1898년 약 20,000 명의 회원과 170 개 이상의 협동조합
- 1895년 트렌토 협동조합연맹 창립
- 1899년 사이트 창립(컨소시엄을 통한 유통협동조합)
- 2008년 현재 23만5천명의 회원과 526개의 협동조합, 21개의 사회연맹이 있음

4) 주요 방문내용

<트렌토의 상황>

- 다음과 같이 트렌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줌. 현재의 트렌토의 상황입니다. 52만의 인

구에 270개의 소규모의 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트렌토는 매우 자그마합니다. 그래서 이 태리 전국지역의 2%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의 70%이상이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점으로는 네 개의 언어를 씁니다. 이러한 풍성한 문화라는 것이 어찌 보면 연결시켜주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중요한 균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중요하게도 다른 어떠한 힘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는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지역입니다. 트렌토도(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는 자립경제를 이룬 도입니다. 부가세의 95% 정도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트렌토에 머물게 됩니다. 농업, 교육, 협동조합 등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질문들 중에 자기가 생각할때는 핵심은 저희들의 자율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움직인다 라는 다양한 문화들이 섞였습니다. 중세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서 트렌토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 성향이 시작됩니다. 사회와 사회, 사회와 단체, 여러 것들이 하나의 연대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토 협동조합 연맹의 현황>

- 542개의 협동조합기업과 16개의 컨소시엄이 존재함. 542개는 첫 번째 레벨의 협동조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임. 협동조합 안에 몸담고 있는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임. 두 번째 레벨의 컨소시엄이 열여섯개가 존재함. 그리고 협동조합 연맹에 18,0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다고 함. 트렌토연맹은 ICA에 소속되어있고 협동조합의 7대가치를 잘 지키고 있음.

03

제 2 발 제

유럽의 다기능 농업 사례

정현희(충남발전연구원 6차산업화센터 책임연구원)

유럽의 다기능 농업 사례

정현희(h2jung@cdi.re.kr)

본 자료는 충남발전연구원 2013년도 전략과제 '농업의 다기능성과 다기능 농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적불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01. 다기능 농업 개념

02. 다기능 농업 전략 및 효과

03. 다기능 농업 네덜란드 사례

04. 다기능 농업 국내 사례

05. 마무리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1.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의 개념

■ 다기능 농업의 개념 :

- **기본 배경** : 농업은 단순 생산만을 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보호, 경관유지, 문화적 기능과 같은 외부효과(다원적 기능)가 있다는 전제(IAASTD, 2008)

- **일반적 개념** :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이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는 것
(ex. 직판장, 캠핑장, 체험관광, 치유, 요양, 숙박, 돌봄 등)

- 이론적 개념 :

- ① 농업과 농촌이 농업 생산 활동을 넘어서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2011, VNG).
- ② 농업의 외부효과를 활용하여 농업과 다른 서비스를 하나 이상 제공하는 것을 다기능 농업으로 정의하기도 함(2012, Hans Hurni).
- ③ 농업의 기초적인 기능인 식량 생산을 넘어 생물다양성 회복, 환경정화, 어메니티 복원, 문화유산 활용, 식량안보 등 과거 농업 분야에서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여러 분야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을 의미함(Belletti G. 2002).

⇒ 농업으로부터의 유기적 Value Chain을 완성 하는 것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2.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의 전략 및 효과

1. 다기능 농업 전략

■ Ploeg와 Roep(2003)가 기존의 관행농업이 다기능 농업으로 전환되기 위한 다기능 농업의 전략적 영역을 심화(deepening), 확대(broadening), 재편(regrounding)의 3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삼각형으로 도식화함.

- **재편 전략**은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내부자원을 재조직화하는 활동들
(다각화농업, 친환경농업, 자연순환농업, 경관개선활동)

⇒ 1차농업의 환경개선 전략

- **심화 전략**은 농산물 생산과 유통(공급사슬)의 고부가가치 지향을 강화하는 전략
(전통적 생산방법, 유기농업, 지역 특산물과 지역 인증, 직판, 농가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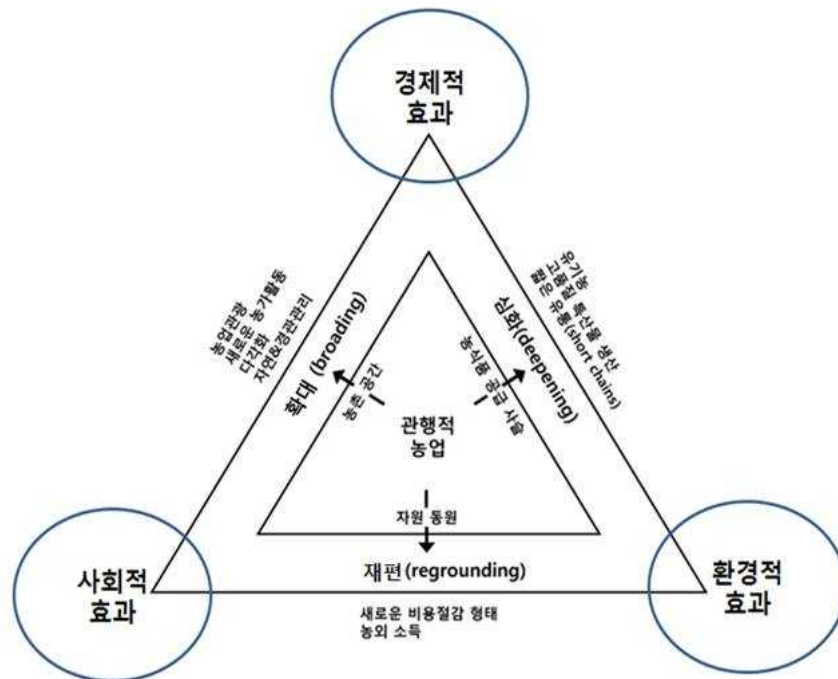
⇒ 1차산업과 2차산업의 유기적 심화

- **확대 전략**은 농촌관광, 자연 및 경관관리를 통한, social farming 등 농가에서 농업 생산 활동 이외의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함.

⇒ 3차 서비스 활동의 확대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2.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의 전략 및 효과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3.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 네덜란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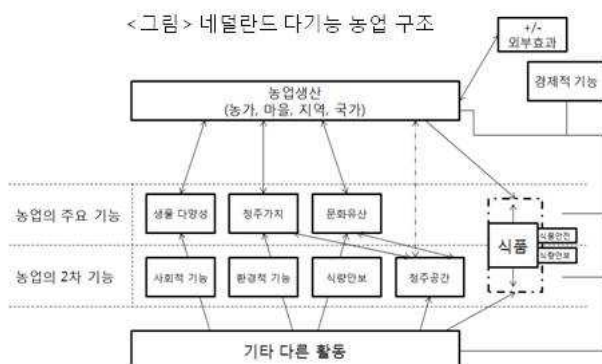
1. 네덜란드 다기능 농업 테스크 포스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농업의 경제적 가치를 두배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와게닝겐 대학에서 운영 (주로 네트워크 조직, 관련 연구 및 지원)
- 주요 목적 : 시장수요증진, 지역소통, 기업가정신강화, 다양한 접근방식 개발, 현장접근연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6개 정책 범주로 치유(Care), 돌봄(Child Care), 직판(Direct Sell), 농촌관광, 레크레이션, 교육농장 형태로 운영

<표> 범주별 경제성과 지표

구분	농가수(company)			매출액(year), 백만유로		
	2007	2009	2011	2007	2009	2011
치유농장	756	870	1,050	45	63	80
돌봄농장	20	64	209	4	14	20
직판장	2,580	3,000	3,300	89	128	147
농촌관광	13,700	13,660	14,000	90	79	86
레크레이션	2,432	2,240	2,884	92	121	156
교육농장	500	500	800	1.5	1.7	2.2
계				322	407	491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3.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 네덜란드 사례

1. Farm Zonnehoeve

연혁	1981년,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바이오다이나믹 농장
종사원	1개 의료가정, 14명의 종사자
위치	네덜란드 동쪽 30km, Zeewold와 Almere 지역 간척지에 위치
농장면적	50ha농지, 축사, 농가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 소고기, 우유 사탕무, 사료용 토끼풀 등, 분노 퇴비(50마리는 200ha 분노생산, 남은 양은 이웃 농가와 물물교환) - 전기 생산(풍력) - 제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 . 사회부적응 청소년이 제빵기술을 습득하며 일정시간 근무 - 농산물 직판장 - 소고기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ewbwinkel 친환경 소고기 판매(GAOS 네덜란드 친환경 연합 체계를 구축 판매협력) . 친환경 Demeter, EKO마크 획득 - 돌봄농장(장기,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의 의료가정이 봉사 - 페밀리 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SG(청소년보호단체)에서 관리 . 사회부적응, 자폐아, 등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관계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교육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에 어린이, 청소년 방문 농업의 중요성 등에 대한 학습활동 - 워크숍/레크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워크숍, 주말 농촌체험활동 등 - 승마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사육 혹은 위탁 방식 . 승마체험도 병행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3.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 네덜란드 사례

<http://youtu.be/yOGMJvkSbGo>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3.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 네덜란드 사례

2. 에이크 후퍼 _ 치유 농장, 사회적 기업 농장

- 이곳 치유농장은 축구장 크기의 16배나 되는 12ha 토지에 유기 농업 방식으로 채소와 6천 마리에 이르는 양계 사업
- 주 고객은 알코올 중독자, 정신 지체자, 치매환자, 노인 등이며 총 인원은 85명
- 간호사와 20명의 돌봄 코디네이터가 환자별 다채로운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
- 농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상주하는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가 닭을 키우거나, 채소를 수확하는 등의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생산된 농산물과 달걀은 유기인증을 받고 전 세계로 팔려 가거나 치유 프로그램 환자 가족 등 일주일에 7천에서 8천명의 유동인구가 찾아와 농장 바로 옆에 있는 직판장에서 판매
- 에이크 후퍼 농장의 연간 총 매출액 120만 유로이며 이중 절반이 직판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임.

4.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 국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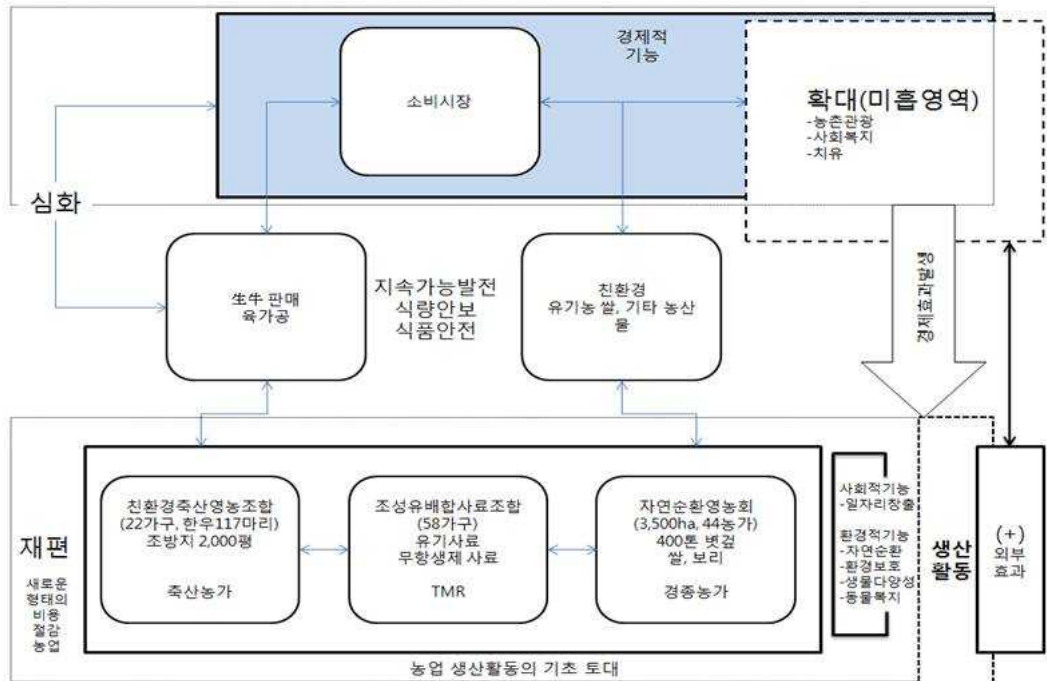
1. 차황자연순환영농조합법인

관리 운영팀	조합원(종목)			
	자연순환영농조합 (2005, 친환경전환)	150	종목	생산량
	배합사료영농조합 (2006)	61	쌀, 보리	350ha
	축산영농조합 (2005)	22	유기사료, 무항생제용 사료	유기 : 3500톤/월 무항생제 : 10,000톤/월
			한우(거세 우)	117마리



4.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ucture) 국내 사례

<그림> 차황자연순환영농조합법인 다기능 농업 형태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4.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ucture) 국내사례



5.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uculture)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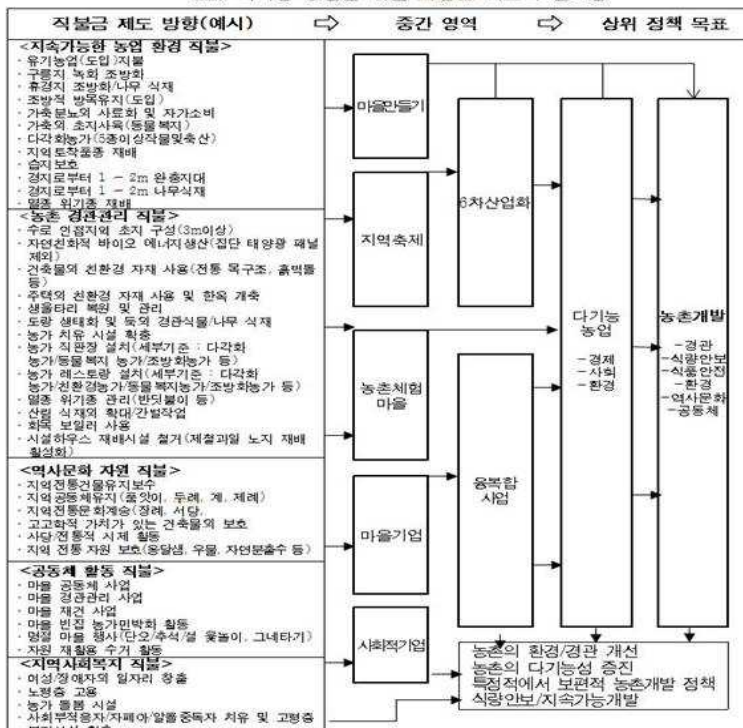
- 농업이 다기능 농업이 아니라고 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님.
- 1차 생산이든, 2차 가공이든, 6차 산업화든 다 중요함,, 다만, 그것이 생명을 보호하고 농업과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후대를 생각하는 친환경 농업 이어야 함.
- 이는 다기능 농업에서도 설명되었듯이 농촌의 환경이 파괴되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
- 우리나라 농촌은 농촌개발사업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현재 특정농가중심으로 사업비가 투입돼 빈부격차, 농촌환경훼손, 사업이 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앞으로는 직불금 정책과 같은 방법으로 농촌환경개선/개발을 위한 정책이 활발했으면 함. (스위스의 경우 농림부 예산의 70%가 직불금 형태로 농촌개발)
- 제주도의 경우 농촌환경, 경관농업이 활발해 다기능 농업으로 선도적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말, 초원, 치유, 국제적 농가 치유 마을)
- 결론적으로 다기능 농업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은

• 다채로운 친환경 농업 들을 통한 **농촌환경(경관)의 개선**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uculture) 활성화방안 참고자료

〈표〉 다기능 농업을 위한 직불금 제도의 필요성



- 다기능 농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의 재편(Re-grounding)이 필요하다. 재편은 **농촌환경 개선, 생산방식의 변화, 친환경 농업 활성화**와 같은 정책방향이 필요한 것으로 유럽과 같이 **환경직불 정책**을 펼쳐 보편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04

제 3 발 제

퀘벡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장효안(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퀘벡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¹⁾

장효안(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1.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역사 및 현황

1) 협동조합

- 19세기 중반 공제조합으로 시작한 역사를 바탕으로, 1900년에 생긴 데자르덴 서민금고를 시작으로 한 신용협동조합과 1922년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현재까지 이어져 각각 데자르덴 그룹과 라쿠페데레라는 퀘벡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양대 주축이 되었음.
- 1930년~45년 주택, 식품, 임업과 장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발달하였으며, 1960~80년대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었음.
- 협동조합 운동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전체협동조합의 네트워크인 CQCM(퀘벡의 상호공제와 협력을 위한 위원회)이 1940년 설립되고 현재 대정부협상 조직으로 역할하고 있음.
- 퀘벡의 협동조합 현황은 크게 금융협동조합(공제협동조합 포함)과 비금융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부류의 협동조합은 모두 CQCM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구체적인 협동조합 규모는 다음과 같음

퀘벡주 협동조합 현황



출처: 협동조합국 프레젠테이션

- 총 3,300개 협동조합에 880(총인구 800만)만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규모 1,730억(186조원), 연간 매출액 27조원의 경제규모를 가지며 92,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음. 규모 및 경제적 역량면에서 금융협동조합이 월등하게 큰 것으로 나타남.

1) 본 보고서는 2013년 5월 11일~22일까지 진행된 본 센터의 해외연수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방문 녹취 및 사전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음.

- 퀘벡주에는 재정부 산하에 협동조합국이 있으며, 협동조합과는 비금융협동조합만을 지원하고 있음. 자세한 지원내용은 후술.
- 비금융협동조합은 법에 의해 다섯 가지로 구분됨

협동조합 구분	비중	주요 사업 내용
소비자협동조합	56%	소비자조합원을 대상으로 재화와 서비스 제공. 주교, 소매업, 장례업, 케이블 TV, 교육 분야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
생산자협동조합	12%	생산자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조합원들의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제공. 농식품, 식품생산, 택시, 공동구매그룹(purchasing groups)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노동자협동조합	10%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산림가공, 나무 가공업, 엠블런스, IT,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
노동자주주협동조합	2%	노동자들이 집합적으로 회사 주식의 일부를 소유, 운영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음식가공업, 제조업, 뉴테크놀로지, 교통업 분야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
연대협동조합	20%	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특징이 있음. 법으로 총 3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데(이용자(소비자), 노동자, 후원자(support member)), 이 중 2개 이상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함. 홈서비스, 사회적서비스, 관광업 등 일반 서비스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음.

2) 사회적경제

- 퀘벡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6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1996년까지 퀘벡의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따라 규모를 확대하는 거대 협동조합을 지향.
- 그러나 1996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1995년 퀘벡 여성운동계가 주도한 ‘빵과 장미’의 행진이 계기가 되어 정부, 재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재정위기와 실업극복 전략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3년간 운영함. 이 TFT가 1999년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면서 현재의 상티에가 탄생함.
- 상티에는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협동조합 진영에서는 주로 연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상티에에 가입되어 있으며, 금융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등 큰 규모 협동조합은 가입하지 않았음.
- 사회적경제의 규모는 7,000개 이상의 조직에서 12만 5천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17조원으로 퀘벡 GDP의 8%를 차지함(2002년 규모).

2.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1) 주정부 및 연방정부

주정부 재정부 산하 협동조합국

- 1963년 창설 이후 협동조합 투자계획(1985) 및 협동조합개발정책(20003)을 수행
- 2005년부터는 CQCM과 협동조합 발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CQCM과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을 개발 및 지원하고 CQCM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세제 혜택
 - 협동조합투자계획(Cooperative Investment Plan):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투자한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 감면
 - 소득세 환불 유예제도(Deferred Tax Rebate): 배당금을 협동조합에 재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 배당금을 돈으로 받을 경우 세금 부과. 계속 재투자된 상태에서는 세금부과 없고 최종적으로 협동조합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때 세금 부과
 - 둘 중 한 가지 세제혜택을 선택할 수 있음
- 협동조합 개발정책
 - 6가지 사업목표
 - 10년 이내 20,000개 일자리 창출
 - 주요지표 향상(판매, 자산, 조합원수, 신설된 협동조합수, 시장진입률 등)
 - 향후 5년 간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25% 상향조정하여 협동조합 발전 가속화
 - 규모가 큰 협동조합을 확장하고 큰 협동조합이 의사결정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촉진, 협동조합진영의 생존율을 높이고 유지
 - 이를 달성하기 위해
 - 법률을 정비하고
 - 협동조합의 자본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세제혜택, 협동조합 규모별 자금조달 방식 구분)
 - 협동조합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CDR과 연계하여 강화하고
 -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내 소통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부-협동조합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 형성
- CQCM 관련 지원
 - 2005년 협동조합 발전 파트너십 협약 체결 후 현재까지 약 50억원의 재정 지원
 - 기금조달 방식: 45억(정부지원) + 대규모 협동조합 기부금(5.6억)
 - 지원내용: CDR 보조금(32억) + CQCM 유지운영(3억) + CQCM 섹터별 연맹 보조금(16억)
 - 인수합병 기술 그룹(Le Groupe coop Releve) 운영자금 지원: 협동조합의 인수, 합병 등과 관련한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그룹 지원 명목으로 2013년 1월부터 향후 3년 동안 지

원. CQCM에서 관장함.

○ 지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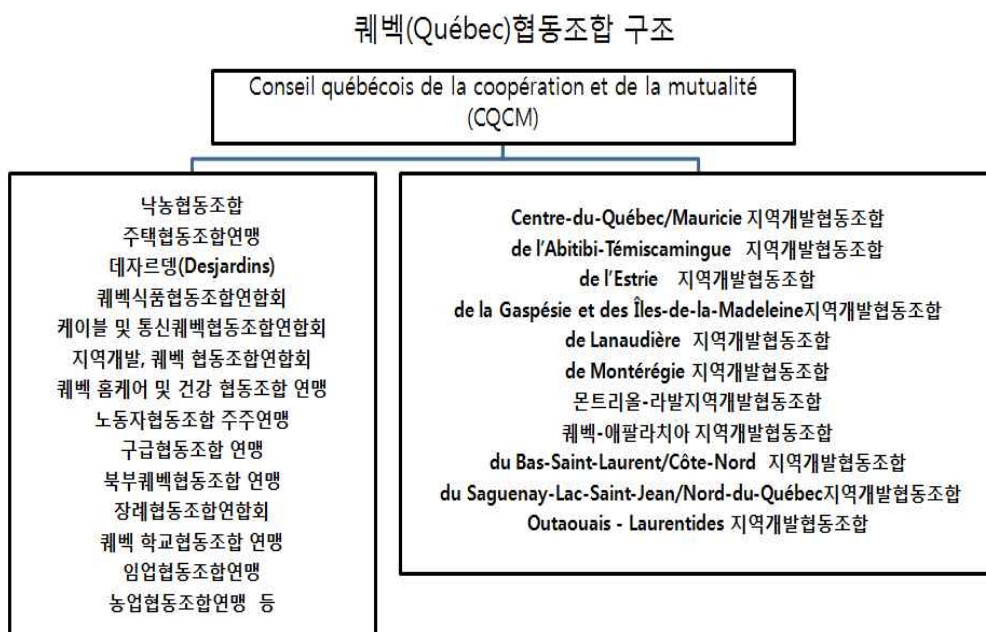
- 2013년 현재 지난 3년 간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60%가 퀘벡에서 설립(퀘벡 인구는 캐나다 전체 23%)
- 1999~2009년까지 협동조합에서 일자리가 37.3% 상승. 같은 시기 퀘벡 전체의 일자리 상승률은 15.5%임
- 기업 생존률도, 5년차와 10년차 기업을 비교했을 때 기존기업에 비해 2배정도 높음

2) CQCM과 상티에

- 협동조합의 대표 진영(CQCM)과 사회적경제의 대표진영(상티에)이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체계 구축. CQCM은 협동조합만의 연합회인 반면 상티에는 가입을 원하는 모든 조직에 오픈되어 있는 포괄적 조직임. 전통적 협동조합은 CQCM에, 연대협동조합 등 신생협동조합은 상티에에 가까움.

CQCM

- 라발 대학의 사회과학분야 교수의 주도로 1940년 설립하고 1980년 레비에 정착. 분야별, 지역차원에서의 협동조합 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으며, 지역에서 벌어졌던 협동조합 간 경쟁을 조정해야 할 목적 등을 토대로 설립
- 15개의 분야별 협동조합이 연맹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의 CDR이 17개 지역에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CDR연맹도 15개 분야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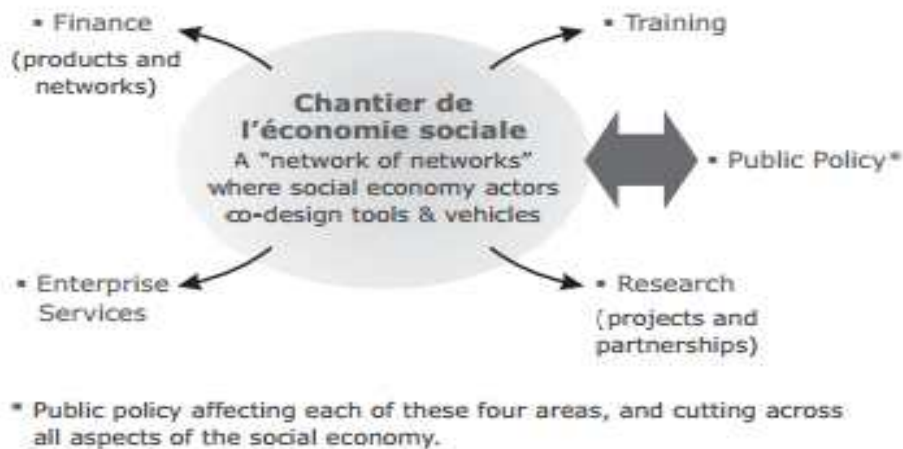
출처: CDI 해외연수 자료집(2013)

- 현재는 2009년부터 14년까지 5개년 행동계획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퀘벡 뿐 아니라 캐나다 전체의 협동조합 현안을 다룸. 3대 행동강령으로 청소년 교육, 협동조합 연구, 퀘벡정부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정하고 있음.
- 총 18명의 상근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CDR, 인수합병기술그룹 등 현장에 대한 정부자원의 전달체계이며, 이사회는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능 수행
- 이사회는 금융(4), 농업(2), 소비(6), 노동(3) 및 지역개발(3) 협동조합 진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자 등 3명의 외부참여자도 포함되어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5년 정부와의 파트너십 체결로, 이전까지 정부가 지역 CDR 등을 직접지원하던 것에서 CQCM을 창구로 하여 지원하게 되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CQCM이 현장을 통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상티에

- 상티에의 기원은 세계여성행진의 기원이기도 한 1995년 4월 ‘빵과 장미를 위한 행진’에서 비롯됨. 빈곤 및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 문제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요구하며 여성 850명이 10일 간 진행함.
- 1996년 이 운동이 계기가 되어 정부, 재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정부, 재계, 노동계의 3자 협상구도의 역사는 거의 40년에 이르나, 시민사회의 참여는 이 때 처음으로 이루어짐.
-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6개월 전에 구성된 TFT 중 하나였던 상티에는 퀘벡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계획을 소개하는데 계획의 이름은 [대담한 연대(Daring Solidarity)]로 사회적·환경적·문화적 필요를 수용하는 수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계획을 제안하며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티에에 2년의 시간이 주어짐.
- 달성목표를 초과한 상티에는 여러 네트워크와 사회운동계의 논의에 따라 일시적 기구에서 NPO로 전환하게 되어 현재의 형태를 갖게 됨. 형식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
- 2013년 현재 12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약10억으로 6억 5천은 정부로부터, 3억 5천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함.
- 상티에는 처음부터 ‘사회적경제’의 개념을정립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이 과정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나고 소통하는데 활동을 주력했음.
- 일반기업의 민주적인 운영 · 사회적경제 영역의 존재를 퀘벡정부 등 공적부문으로부터 인정받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으며, 민간·기업·지역개발주체·사회운동진영 등 다양한 진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은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함.

Diagram 1: The Social Economy in Québec – An Integrated System of Social Innovation



출처: Mendell(2009):46

- 금융, 훈련, 기업지원, 연구조사 등 상티에는 직접지원보다는 이상의 네 가지가 통합적으로 지원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논의하는 ‘논의의 장’의 역할.
- 정책적으로는 공공정책의 공동구축(co-construction of public policy)은 상티에에 의해 보편화된 핵심개념으로 정책적(municipalities), 지역적(CDEC, CLD)차원에서 다중이해관계자를 기반으로 한 토론(multi-stakeholder dialogue)문화와 숙고하는 조정문화(deliberative regulatory culture)를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도입하는데 크게 역할 했음. 이를 멘델 교수는 ‘문화적 이동(cultural shift)’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때 CDEC, CLD를 지역차원의 ‘제도적 토론 공간’으로 설정하여 지역적 차원의 지원을 보편화시킨 것 역시 상티에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상티에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써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섹터별 논의의 공간으로 이해하는게 타당하며, 상티에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형식의 파트너십, 새로운 사회적 이니셔티브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실험정신을 강조하고, 새로운 선례의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함. 이런 바탕에서 RISQ, Fiducie 등과 같은 연대금융이 형성되었음.

3) 지역개발 지원 조직

- 지역개발 프로젝트 지원의 세 주체: CDR, CDEC, CLD.
- 협동조합 진영은 재정부(협동조합국) – CQCM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며, 지역차원에서 CDR이 협동조합의 설립과 지원을 관장하고 있음. 사회적경제진영은 국토 및 지역부(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Regions and Land Occupancy) – 상티에 협조를 통해 체계를 구축하며, CDEC와 CLD를 통해 지역의 의제를 발견하고 지원하고 있음.

CDR(지역개발협동조합)

- 지역 내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법률상 협동조합을 취하며 지역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로 기능함
- CDR을 통해 설립된 개별 협동조합들이 CDR의 주요 의사결정 당사자가되는 구조.
- 협동조합 초기 설립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간 협동을 도모하며,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이해를 대변하는 크게 3가지 목적을 수행함. 협동조합 초기 설립에 필요한 협동조합적 지원 외에는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 설립협동조합 당사자에게 연계해주는 지원역할을 수행함.
- 현재 17개 행정구역에 총 11개 CDR이 설립 되었으며, 1,2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아우르고 있는데, 11개 CDR에 전체 60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음.
- 이들은 모두 CQCM에 소속되어 있는 협동조합이나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일부는 상티에에도 가입되어 있음.

CDEC(지역(regional)개발공사)

- 지역개발을 위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비영리조직으로 1989년 낙후된 몬트리올 서남부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13개의 CDEC가 운영되고 있음.
- 주정부·연방정부·몬트리올 정부의 혼합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실업과 경제적 활성화를 강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동운동,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예) RESO의 네트워킹 시스템(콜레주). 지역의 10개 분야(제조, 서비스 및 새로운 경제, 자영업, 금융업, 사회적경제 기업, 노동조합, 문화, 건강 및 교육기관, 기타 지역사회 인사, RESO직원)에서 17명의 이사를 선출하여 RESO의 운영책임을 맡음. 오래 걸리고 잘 작동되지 않던 시스템이었지만 ‘빈곤’이라는 공공의 적으로 협력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었고, 개인의 리더십도 중요한 요소라고 RESO의 사무총장은 진단하고 있음
-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교육, 상담, 기업 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수행했으나 현재 기업 지원은 CLD를 통해 연계하고 있음. CDEC는 CLD의 모델로, 갈등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지역의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 금융이 개별 기업에 연계되는 통로구조임. (CLD도 마찬가지.)

CLD(지역(local)개발센터)

- 지역 내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1998년부터 정부가 급속하게 확장한 비영리 조직임.
- 현재 퀘벡 내 120개 조직이 있어 기초단위의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음.
- CLD의 주요 사업은 창업 지원, 사업확장 지원, 사업유지지원, 지역사회투자, 일반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일반기업은 100% 상환을 기본으로 하는 대출지원이며 (금리 8%), 사회적경제기업은 부분적으로 대출을 하거나 보조금으로 지원.

- CLD는 자체 자금이 있어 기업지원의 seed money로 사용하는데, CLD의 투자는 상당한 수의 외부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예) CLD de Quebec, 2012년 16억을 지역 기업에 투자, 총 200억의 투자를 유치하였음.
- 기업투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만들고 예산 중 일부를 지역 사회투자로 사용(CLD de Quebec의 경우 예산의 15%가량 투자). CLD de Quebec은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CLD의 지원을 받은 바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열린포럼을 열어 6개월 동안 지역사회 현안에 우선순위를 매기며 2012~2017년 CLD 5개년 계획을 수립
- 다만 퀘벡 협동조합 전문가 제라드 페론은 'CLD de Quebec은 CLD 중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조직이나 많은 CLD는 기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고 첨언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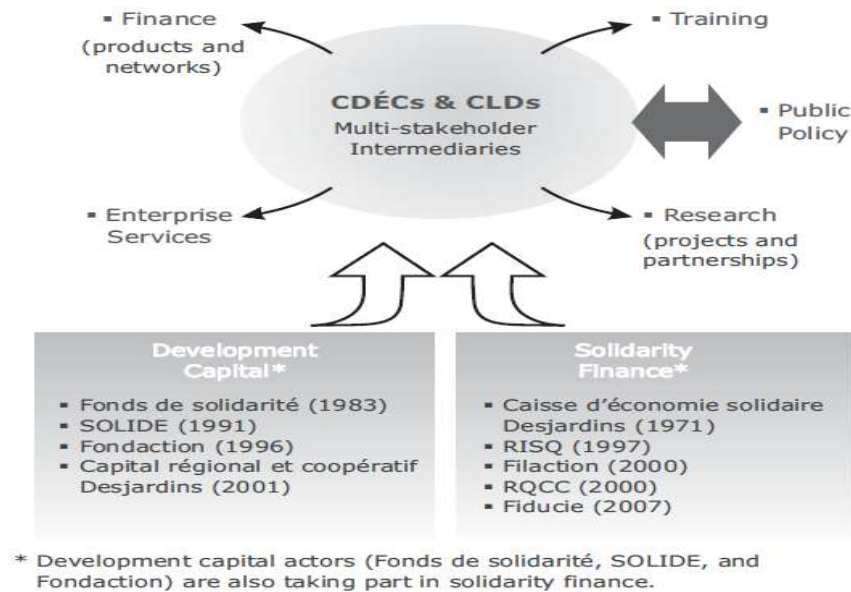
3. 금융 지원 시스템²⁾

1) 2007년 이전까지의 상황

- 주 금융제도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투자를 간과하면서 주 금융제도는 사업계획과 마케팅 전략에 근거하여 투자를 결정했음.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은 존재했으나 공급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발전 전략속에서 금융이 고민되지 못했음.
-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발전전략 관점으로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음.
- 이상이 2007년까지의 상황이었으며, 사회적경제진영에 제공되는 총체적인 제공시스템은 아래와 같음.

2) Marguerite Mendell(2009). *Financing the Social Economy in Quebec*. Makingwaves Vol.20 No.3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Marguerite Mendell & Nancy Neamtan(2008). *The social economy in Quebec. Towards a new political economy*. 보조 참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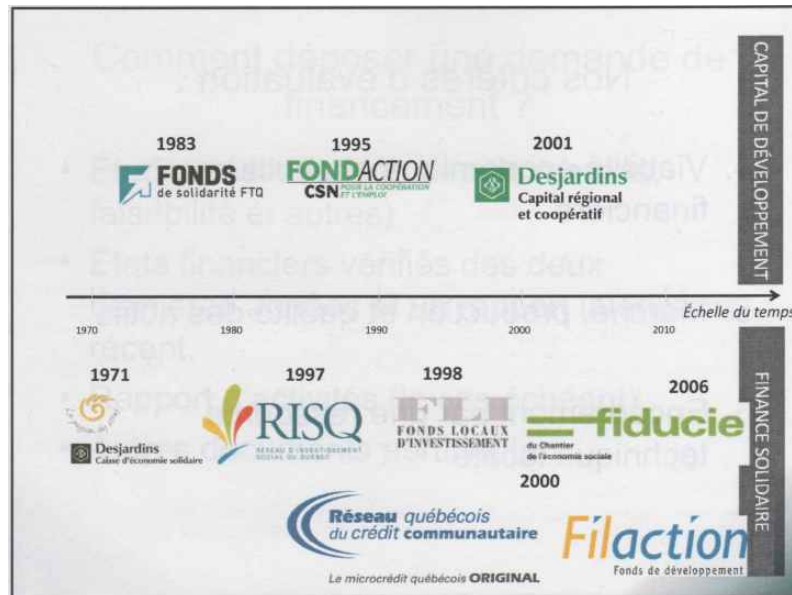
Diagram 2: Solidarity Finance in Québec – A Systemic Approach



출처: Mendell(2009):47

- multi-stakeholder space(다중이해관계자 공간) 상티에는 섹터별로, 지역별로는 CDEC와 CLD에서 섹터 및 지역의 필요를 캐치
- CDEC와 CLD가 지역에서 다중이해관계자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하면서 훈련, 기업서비스, 연구조사 및 금융지원을 수행.
- 두 가지 금융제도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발전자본과 연대금융임. 발전자본의 경우 민간기업 투자를 우선으로 하며, 연대금융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우선으로 함.
- 퀘벡에서 연대금융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양대 노동조합(FTQ & CSN)임.
 - 퀘벡의 경제위기에 대한 주체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가장 큰 노동조합인 FTQ에서 1983년 Fonds de solidarite라는 투자기금을 조성했고, 현재까지 퀘벡의 약 60% 기업이 Fonds의 투자를 받았음. 2008년 현재 7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약 4조에 달하는 투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100,000개 이상으로 집계됨.
 -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 큰 노동조합인 CSN에서 Fondation이라는 투자기금을 조성,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혹은 유지하고, 2008년 현재 자산규모는 636억 규모임. (Mendell & Neamtan(2008):5)
- 1996~2006년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총 7,500억을 넘으며, 1996년 280억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1,150억이 투자 되었음.
- 연대금융의 측면에서는 퀘벡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협동조합인 데자르맹의 1971년 연대금고가 첫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으나, 정상회의 TFT와 상티에를 통해 급속하게 확장되었음. RISQ와 Fiducie를 상티에에서 관장하고, Filaction은 CLD에서 관장.
- CDEC와 CLD를 통해 금융지원이 연계된다 하더라도, 금융과 관련한 조치를 조화롭게 하고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간의 네트워킹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또한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구조로써, 무엇보다도 연대금융이 주변적이거나 부분적인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네트워킹은 필요했음. 그리하여 2009년 금융네트워크 CAP Finance 생성. 아래는 CAP finance 구성 금융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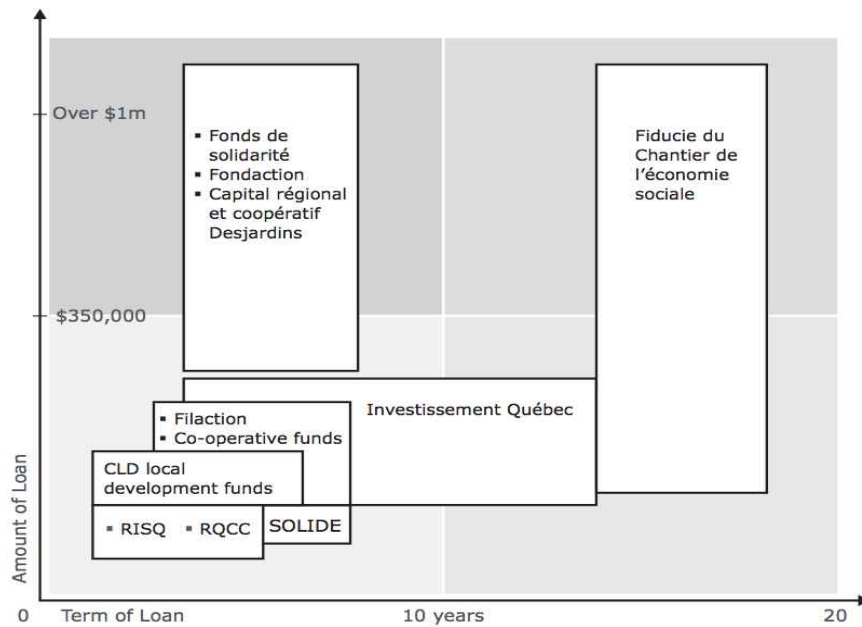


출처: RISQ 프레젠테이션

- 대출 중심의 금융시스템은 단기, 중기 상환방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빚을 양산함. 앞서 말한 7,500억원의 투자도 중단기 투자로 부채성 금융지원이었음. 결국 주식을 팔아 투자를 유지할 수 없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장기자본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함

2) 피두시(Fiducie)의 탄생

- 2004년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1,300억원을 조성하여 1,000억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본화를 위해 사용하고, 300억원은 역량강화 및 조사에 사용하겠다고 발표. 이 과정에도 샹티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
- 이 중 300억이 퀘벡주로 할당되고 할당된 300억 중 228억을 사용할 수 있게됨. 이 기초자금이 피두시 조성을 위한 다른 자금을 유치하는데 핵심적으로 기능함
- 이후 퀘벡 양대 노동기금인 FTQ와 CSN에서 각각 120억과 80억을 피두시에 투자하고,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퀘벡정부기금인 Investissement Quebec에서 100억을 투자함.
- 2007년까지 총 538억의 기금을 형성 '인내자본', 유사자기자본기금(quasi-equity fund)성격의 투자를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기계획 실행 및 부동산 명목 등에 투자되고 있음
- 15년까지 무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며, 5,000만원~15억까지 대출이 가능함. 그러나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프로젝트 전체 금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음.



출처: Mendell(2009):49

- 이후 피두시는 혁신적이고 주요한 금융중개인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2010년 현재 53개 프로젝트에(75.5%가 부동산에 사용) 157억이 투자되었고, 프로젝트 당 평균 투자액은 2억 9천 만원임.
- 피두시의 투자금이 마중물이 되어 유치된 전체 투자금액은 1219억원이며, 1,323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였음.
- 이외에 새로운 기획 중 하나로, 2010년 8개 지역조직에 공동건물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2억을 투자함. 공동건물에서 지역일자리 창출, 기업가양성,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 및 데이케어센터, 지역발전센터, 청년고용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200명 이상을 고용하고있는 조직이나 아동보호센터, 홈케어서비스, 출산전문기관, 교육서비스, 주택서비스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대체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함.

4. 퀘벡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특징

협동조합 진영과 사회적경제 진영의 관계

- 협동조합은 사회전반에 대한 문제의식보다 조합원의 이익에 복무하는데 중심을 두고 활동하며 규모화 및 글로벌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음. 반면 사회적경제 진영은 경제민주화와 경제발전 모델 등에 관심을 가지는 등 전 사회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음.
- 규모화된 협동조합의 연맹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단일이해관계자를 모델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 진영은 작은 규모의 다중이해관계자를 모델로 하는 신생 협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충분하지 못했으며, 이런 연유로 연대협동조합의 다수는 샹티에에 가입되어 있음

- 三十二

- CDR-CDEC-CLD 세 조직이 각각 협동조합 지원, 지역민 참여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 기업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경제 진영의 경우 ‘공공정책의 공동구축’이 사회적경제 지원에서 핵심으로 보고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다중이해관계자 참여의 토론문화를 보편화시키고자 함. 이는 탑다운 방식도, 보텀업 방식도 아닌 ‘수평적이고 대화적 접근(horizontal and dialogic approach)’의 성격을 갖는 급진적 문화이동의 성격을 가짐³⁾.

민간 이니셔티브가 중심이 된 다양한 유형의 기금

- 퀘벡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가 발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다양한 기금에 있음. 1996~2006년까지 10년간 사회경제적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총 7,500억이 넘으며, 2005년 한 해에 1,150억이 투자되었음
- 특히 눈여겨볼 특징은 노동운동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인데, 발전자본의 시작 및 확장을 두 노동기금이 담당했으며, 연대금융의 확장에서 큰 기여를 하였음. fiducie의 설립은 ‘공공정책의 공동구축’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음.
- fiducie와 같은 연대금융의 경우 1:9의 투자유치를 가지고 왔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연대금융은 한 기업의 프로젝트의 35%이상을 투자할 수 없어 투자손실의 분산효과도 있으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함. 현재 연대를 위한 CAP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3) Marguerite Mendell & Nancy Neamtan(2008). *The social economy in Quebec. Towards a new political economy*, p.16.

05

제 4 발 제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구축과 활성화 방안

최영근(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구축과 활성화 방안



수협



신협



한살림

2013. 10. 17



새마을금고



최영근 박사/제주발전연구원



Contents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

III

협동조합 현황

IV

사례연구

V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 유형

VI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협동조합은 구조조정의 최소화, 빠른 경영정상화 등 국가적으로 경제안정에 기여함
 -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그 효용성을 주목 받음
- UN총회 :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 채택
 -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권고
 -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 새로운 사회 통합적인 경제모델을 구축하자는 사회적운동의 큰 힘을 제공함
- 8개 개별 협동조합법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 생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을 규정
 - 민간의 필요에 의한 자율과 자발적인 결합체로 생겨난 상향식 조직이라기보다는 농어민 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과 같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영역으로 인식
 - 즉, 국가의 정책수단 또는 정책수행의 보완적인 조직이나 기능으로 인식되어 활용되어온 측면이 큼
-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자율적, 자발적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한계를 줌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에 윤리경영 및 상생번영 등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 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구축해야 함
- 앞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함께 사회·경제, 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
 - 제주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성공적인 제주형 협동조합설립을 위한 모델 구축과 활성화 방안 제시

II.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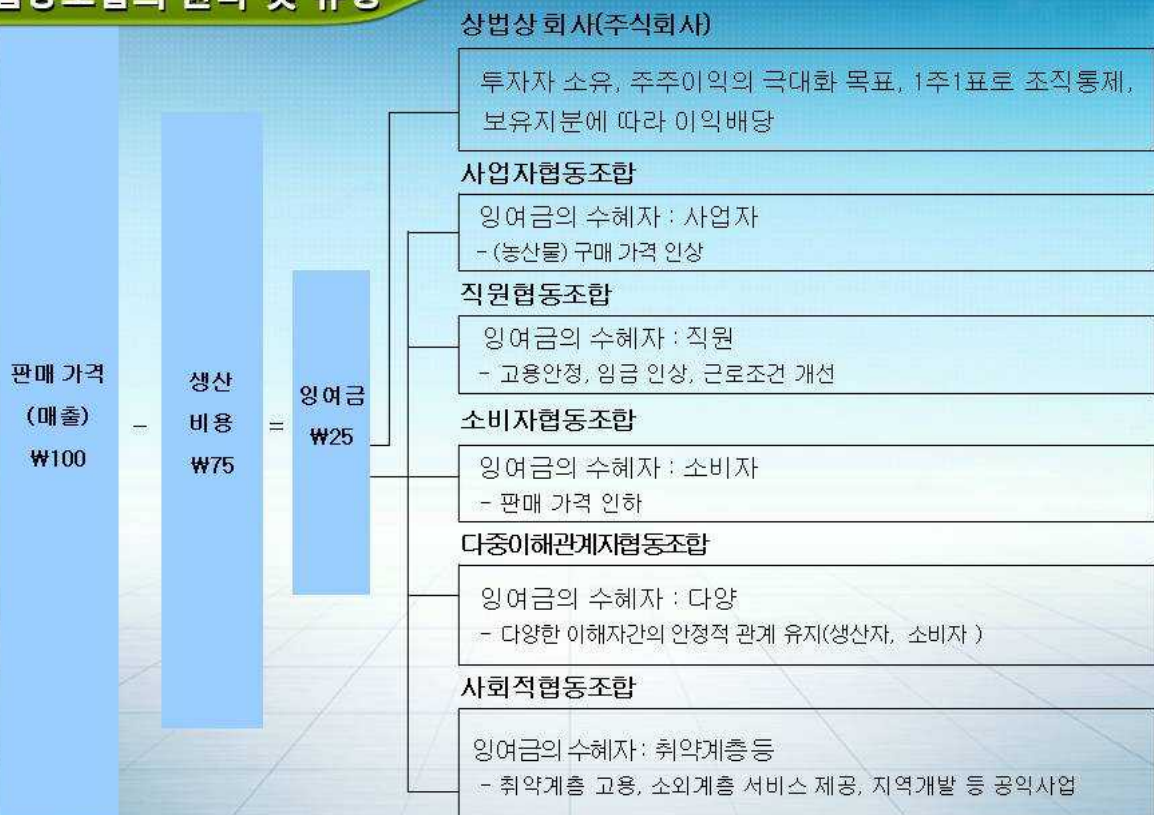
II.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개념

구분	협동조합 정의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서 공헌 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국제노동기구(ILO)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을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유럽 협동조합법	- 공통의 이해를 가진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소유체 조직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
美(미) 농무성(USDA)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美(미) 뉴욕협동조합법	- 비영리 조직으로 조합원들의 상호자족·협동 및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II.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협동조합의 원리 및 유형



Ⅲ.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협동조합기본법

(1) 주요내용

- ①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 도입
 -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등), 민법상 법인(사단법인 등) 이외에 새로운 사업 형태인 ‘협동조합’에 법인격 부여(2층 구조)
- ② 협동조합의 특징
 - 협동조합은 조합원 권익증진, 1인 1표,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업조직
- ③ ‘협동조합 정책’ 추진체계 규정(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 기재부가 협동조합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인가·감독(시행령으로 위임), 시·도는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수리 담당

Ⅲ.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협동조합기본법

- ④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명시
 -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일반법-특별법 관계)
- ⑤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
 -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 지역농협 : 1,000인, 소비자생협 : 300인, 신협과 새마을금고 : 100인
- ⑥ 감독 및 벌칙 등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또는 사업에 대한 감독권 및 시정 조치권, 설립인가 취소, 청문 등의 근거조항 규정

II.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협동조합기본법

⑦ 기 타

-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 신설
 -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 사무장병원 난립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요건 강화
 - 관련 제도개선
 - 요건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기본법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 병행
- ※ 일반사업 수행시 : 최소조합원수 5인, 최저출자금 없음
 의료기관 개설시 : 최소조합원수 500인, 최저출자금 1억원 등

II.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협동조합기본법

(2) 협동조합의 7대 원칙

○ ICA는 로치데일 협동조합 성공사례를 토대로 협동조합 운영의 7대 원칙 제시

-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자발성)
-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민주성)
-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경제성)
- ④ 자율과 독립(자율성)
- ⑤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미래지향성)
- ⑥ 협동조합간의 협동(연대성)
-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공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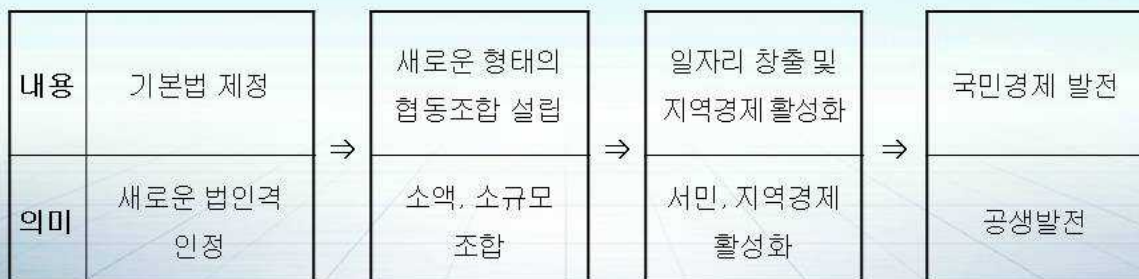
Ⅱ.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협동조합기본법

(3)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 설립수요 : 향후 5년간('13년~'17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 설립 예상(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고용창출 효과 : 향후 5년간 취업자 수는 4~5만명, 그 중 피고용자는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자료 : 기획재정부(2013.1),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Ⅱ.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협동조합기본법

①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 새로운 법인격 도입 : 일자리 확대, 복지비용 절감 등 시장과 정부의 역할 보완
- 경제적 효과 : 창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등 경기 안정화에 기여
-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교섭력 증대 및 지역협동조합 :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의 양극화 완화
- 사회적 효과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함

② 경제주체별 기대효과

- 소비자 :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과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 증가
- 생산자 : 소비자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 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
- 근로자 :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임금 상승도 기대

III. 협동조합 현황



III. 협동조합 현황

협동조합 현황

1) 협동조합설립 현황

○ 2013년 8월 31일까지 전체 설립신청건수는 총 2,530건으로 이중 2,388건이 신고 수리 또는 인가

2)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수리 현황

○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2,402건의 설립신청이 이루어져 이중 2,314건이 신고 수리
○ 제주지역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2013년 9월말 기준 31건 신고 수리
-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 18, 소비자 9, 직원 3, 생산자 1건 등으로 나타남

3)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신청 및 인가 현황

○ 사회적협동조합의 신청건수(2013년 8월 31일 기준)는 고용노동부 24건(수리 15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이 되었으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22건(수리 6건), 기획재정부 21건(수리 13건), 교육부 15건(수리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4)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및 수리 현황

○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전국자전거 협동조합연합회 등 11건이 신청 되었으며, 이 중 8건이 수리됨
- 따라서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연합회 설립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IV. 사례연구



IV. 사례연구

1. 국내사례

1. 옥천살림영농조합법인(에비사회적기업)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는 물론 2012년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취약계층들에게 희망의 일터가 되고 있음. 또한 옥천지역 초·중·고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 66개소에 쌀, 우리 콩 두부, 계란 등 20여 가지 친환경재료를 공급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IV. 사례연구

1. 국내사례

2. 대전 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동조합이며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나누고 협동하는 주민자치공동체



IV. 사례연구

1. 국내사례

3. 대전 품앗이생활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공동체 품앗이로 순환과 공생의 지역살림을 꾸려나감으로써 가족을 살리고 마을을 복원하며, 자립적이고 대안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터이자 삶터인 마을에서부터 협동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활 공동체 만들



IV. 사례연구

1. 국내사례

4.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공동체운동기관 등의 네트워크 조직



IV. 사례연구

1. 국내사례

5. 소꿉마당어린이집(부모협동조합 공동육아어린이집)

- 아이들에게 열린 교육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미덕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 공동체적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고자
1999년 5월에 설립된 부모협동조합형 어린이집으로써 조합원(학부모) 운영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급식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보육만족도와 신뢰도 높음



IV. 사례연구

1. 국내사례

6. (사)평창그린투어사업단

- 방문객들은 아름다운 농촌의 쾌적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체험마을, 레포츠, 특화체험(관광농원) 운영자들이 연합마케팅을 실시하여 방문객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주고, 지역주민에게는 수익창출 기회 제공



IV. 사례연구

2. 해외사례



← 미국/웰치스



↑ 미국/썬키스트



← 스페인/FC 바르셀로나

IV. 사례연구

2. 해외사례



← 뉴질랜드/제스프리



↑ 스위스/소비자협동조합
미그로(Migros)



← 몬드라곤 협동조합
(스페인, 바스크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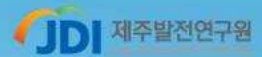
IV. 사례연구

3. 정책적 시사점

1) 유럽 협동조합의 성공요인

- ① 산업발전의 초기단계
- ② 협동조합설립의 용이성
- ③ 내부 구성원의 윤리의식/책임감
- ④ 협동조합간 협동
- ⑤ 연대의식
- ⑥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⑦ 교육/기술, 금융의 중요성

IV. 사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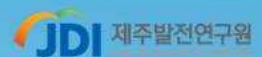


3. 정책적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 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의 전략적 변화**
 - 기존의 예산(사업비)지원 중심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 ② 협동조합간의 **연대 강화 및 연계사업 활성화 촉진**
 -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협동조합연합회 참여유도 및 설립 지원
- ③ 지역주민 의식개혁 활동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 강화**
 -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으로도 기업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 국내외 협동조합사례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소개 책자 발간, 교육프로그램 운영

IV. 사례연구



3. 정책적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 ④ 지역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자원 연계 활성화**
 - 1차, 2차, 3차산업이 서로 연계되는 협력적 연계모델 발굴 지원
 - 지역주민이 조합원이면서 소비자가 되는 선순환구조 정립
- ⑤ 지역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기반 및 경쟁력 확보**
 -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차별화 지원

V.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 유형



V.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 유형

1. 제주형 모델 구상을 위한 고려사항

-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등 유네스코(UNESCO) 자연과학 3관왕을 차지하며 람사르보호습지 4곳이 소재한 한국의 대표적 자연 문화재이자 세계의 문화유산지로서 이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산업논리를 뛰어 넘는 지역의 과제임
- 또한 제주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 19.3%, 2차산업 3.8%, 3차산업 76.9%으로 3차산업에 제주도민의 생계가 달려있는 상황임
 - 특히 관광산업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관광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다변화 전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지역은 육지와 떨어져 있어 물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생협의 물류체계를 활용하되, 여타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와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물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V.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 유형

1. 제주형 모델 구상을 위한 고려사항

- 귀농귀촌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수용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임
 - 최근 이주민 관련 협동조합이나 지원센터 등이 모색되고 있는 바, 이 부분 또한 협동조합 생태계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제주형 협동조합 설립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해야 할 것임
 - 첫째,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도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며 개발로 인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대안적인 지역개발 전략 수립**
 - 둘째,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네트워킹 하여 **친환경 관광생태계 조성**
 - 셋째, **관광산업의 지속성 및 다변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와 전통을 재해석하고 발굴하는 작업과 동시에 영리목적의 관광산업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공정여행 및 생태관광 등의 사회적 관광 활성화
 - 넷째, 개발로 인한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공존(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통합 방안 마련**
 -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자립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과 안정적인 사회진출 지원**

V.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 유형

2. 설립모델 및 유형

- 지역개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일곱색깔 무지개 협동조합 창업 프로젝트’

① 대안적 지역개발

사업영역	유통, 지역개발, 로컬푸드
의의 및 목적	<input type="checkbox"/> 연륙 물류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내발적 지역개발과 지역의 자립/자치를 위한 호혜시장 구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보 <input type="checkbox"/> 도내 영세자영업자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묶고 사회적경제 유통구조에 합류하도록 하여 자영업자 보호 <input type="checkbox"/> 로컬푸드 확산으로 지역농업을 장려하고 윤리적 소비 실천
협동조합 유형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례	<input type="checkbox"/> 대전의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완주/순천 등의 로컬푸드 매장

V.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 유형



2. 설립모델 및 유형

② 문화생태적 도시재생

사업영역	공정여행, 관광, 공연 및 문화기획
의의 및 목적	<p><input type="checkbox"/> 여행 및 레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한편, 기존의 소비적이고 자연 파괴적인 관광행태가 아닌 친환경적이고 지역문화를 보존하는 사회적 관광이 대두되는 추세임</p> <p><input type="checkbox"/> 다른 한편,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으로 도시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상권이 몰락하여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 및 전통을 자원화 하여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p> <p><input type="checkbox"/> 이에 청년 문화예술가들의 활동을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사회적 창업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함</p> <p><input type="checkbox"/> 제주지역의 문화생태적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네트워킹하고 협동방식으로 경영능력을 제고시킴</p>
협동조합 유형	<p><input type="checkbox"/> 직원협동조합</p> <p><input type="checkbox"/> 여행사업자협동조합</p> <p><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p>
사례	<p><input type="checkbox"/> 대전의 '대흥독립만세'를 중심으로 한 지역축제, 마을기업 게스트하우스 '산호여인숙'의 지역문화예술인 공연장소 제공 및 숙박 제공 등</p> <p><input type="checkbox"/>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레알뉴타운</p> <p><input type="checkbox"/> 영구 및 인보이 커뮤니티 비즈니스</p>

V.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 유형



2. 설립모델 및 유형

③ 평화 & 국제연대

사업영역	공정무역, 공정여행, 지역개발
배경 및 의의	<p><input type="checkbox"/>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간의 분쟁 및 전쟁, 핵위협, 환경파괴 등으로 인해 지구촌의 평화공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특히 국제무역 불평등으로 인한 남부국가의 종속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대안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대학생 및 청년층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임</p> <p><input type="checkbox"/>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NGO 및 협동조합의 조합원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들이 지속적인 지원 및 교류를 위하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욕구가 큼</p>
협동조합 유형	<p><input type="checkbox"/> 여행사업자협동조합</p> <p><input type="checkbox"/> 직원협동조합</p> <p><input type="checkbox"/> 국제연대 및 지역개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p>
사례	<p><input type="checkbox"/> 일본 생활클럽사업연합생활협동조합연합회 및 그린코프</p> <p><input type="checkbox"/>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p> <p><input type="checkbox"/> YMCA 사회적기업 '까페티모르'</p>

V.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 유형



2. 설립모델 및 유형

④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 및 경영지원(품어주는 창업 협동조합)

사업영역	창업지원컨설팅
배경 및 목적	<p><input type="checkbox"/> 창업을 원하는 이는 사업계획의 구체화로부터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자질이 요구되나 기존의 창업지원서비스는 일회적인 자문이나 사후관리 정도로서 창업인을 단련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이 부재했음</p> <p><input type="checkbox"/> 또한 마이크로크레딧(무담보소액대출)의 경우 체계적인 단련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 커 실제 대출금액보다 관리비용이 초과하여 재정을 압박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식 창업지원은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혁신적인 방법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1년간 채용하여 공동체를 구성, 공동으로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p> <p><input type="checkbox"/> 실업자 및 조기퇴직자의 안정적인 창업 지원</p>
협동조합 유형	<p><input type="checkbox"/> 직원협동조합</p> <p><input type="checkbox"/> 컨설팅사업자협동조합</p>
사례	<input type="checkbox"/> 프랑스의 Creon

V.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 유형



2. 설립모델 및 유형

⑤ 지역복지

사업영역	의료, 복지
의의 및 목적	<p><input type="checkbox"/> 의료생협(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의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연계한 지역 보건복지돌봄연계서비스체계 구축</p> <p><input type="checkbox"/>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여 건강한마을을 만듦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 주체가 됨</p>
협동조합 유형	<p><input type="checkbox"/> 의료복지다중이해당사자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p> <p><input type="checkbox"/> 소비자의료생활협동조합</p>
사례	<p><input type="checkbox"/> 벨기에 의료의집과 환자협동조합</p> <p><input type="checkbox"/> 대전 만들레건강사회적협동조합</p> <p><input type="checkbox"/> 서울 은평 살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p>

V.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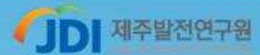


2. 설립모델 및 유형

⑥ 청년상호부조

사업영역	상호공제, 보험, 교육
의의 및 목적	<p><input type="checkbox"/> 등록금, 일자리 등취업을 하더라도 단기·계약직과 같은 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층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p> <p><input type="checkbox"/> 힘들게 취업하는 경우에도 받은 급여는 학자금대출 상환, 높은 전월세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청년 워킹푸어(Working Poor)'로 전락하는 현실임</p> <p><input type="checkbox"/> 이러한 여러 문제가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 안전장치는 부족하여 최근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과 같은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이러한 청년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자, 실업자, 아르바이트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p> <p>대안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상호부조조직을 설립하여 생활지원 및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p>
협동조합 유형	<p><input type="checkbox"/> 공제조합형직원협동조합</p> <p><input type="checkbox"/>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p>
사례	<p><input type="checkbox"/> 한겨레두레공제조합</p> <p><input type="checkbox"/> 자화공제조합</p>

V.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 유형



2. 설립모델 및 유형

⑦ 취약계층 취업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인력제공

사업영역	인적자원개발
의의 및 목적	<p><input type="checkbox"/> 지역자활센터 및 복지관, 노인일자리 지원조직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는기관을 위한 창업모델 제시</p> <p><input type="checkbox"/> 이들 조직이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정부나 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p>
협동조합 유형	<p><input type="checkbox"/>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p> <p><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p>
사례	<p><input type="checkbox"/> 유럽의 노동통합사회적기업</p> <p><input type="checkbox"/>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p> <p><input type="checkbox"/>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SCIC)</p>

Ⅶ.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Ⅶ.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1. 목표 및 계획

목표 : 건강한 제주형 협동조합 기반조성

기본방향

- 협동조합 자생력 강화
- 민간 역량 강화 및 협력 유도
- 제도정비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 전략분야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 협동조합의 안정적 정착과 부작용 최소화

추진전략

- 협동조합 체제 구축과 체계적 지원 확대
- 법인, 공동체 등을 협동조합으로 전환 유도
- 인재육성과 교육·홍보 강화로 접근성 제고
- 정책 네트워크 구축과 자금지원 강화
- 분야별 제주형 협동조합 발굴 및 지원
- 협동조합 가치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

VII.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2. 활성화 방안(추진전략)

계획 및 설립단계

- 제주형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체제 구축
-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 강화로 접근성 제고
- 협동조합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교육 강화
- 협동조합 주간 기념행사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실행 및 장엄단계

- 협동조합 창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
- 협동조합 연합회 및 정보지원협동조합 육성
- 제주형 협동조합 설립의 적극적 전개
- 법인, 공동체 등을 협동조합으로 전환 유도
- 협동조합 교류 활성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안정 및 성숙단계

-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는 자금조달 기반 구축
- 제주형 협동조합 성공사례 발굴 및 인증
- 사회·경제적 취약분야에서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도모
- 협동조합들의 공동연구사업 지원

2012

International
Year of

감사합니다.

Cooperatives

06

제 1 토 론

협동조합 : 지역사회와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

고승한(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협동조합 : 지역사회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기반 구축을 하는데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정책적 노력들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에 중앙 정부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정부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설리 및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사회가 그 동안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경제적 위기와 갈등(소위 IMF 외환위기,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량실직, 경기의 장기침체, 사회양극화 확산, 빈부격차 및 사회불평등 심화 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재벌경제 중심의 수출의존도 경제 정책 기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반면에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또한 지방은 서울 수도권과의 상대적 지역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지방에서 취업과 고용 문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는 실정에 직면해 있다.

한국사회에서 근대화, 서구화, 독재체제 하의 권위주의 정권, 국가의 불균형성장 전략, 급속한 산업화 등의 역사적 발전 맥락속에서 지역공동체사회의 지속성과 연대성은 공동체 내·외부(in-community and with community)적 관계 속에서 심히 약화되었다. 그 결과가 학계와 시민사회 일부에서 지역공동체의 재생(regeneration)과 재창조(recreation) 논의들이 최근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실천 행동의 가장 대표적 예가 바로 사회적경제의 일상화 운동이고 협동조합 활성화 문제라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들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과연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필요조건들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서구유럽(이탈리아 로냐, 캐나다 퀘벡, 네덜란드 다기능 농업 등)의 협동조합 역사와 경험이 과연 한국적 환경에 착근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도 생산, 소비, 이용, 신용 등의 분야에서 역사적 발전을 해 오고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성과 목적성 실현과는 약간의 차이성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생산자 단체의 협동조합 대표격인 농협이 과연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기여해 왔는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사회에서 협동조합(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내포하는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실천성을 확보해 나가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져

야 할 것이다. 첫째,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치적 민주성과 정치적 활동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 등과 같은 결사체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주체들을 제대로 육성하고, 동시에 엄격한 검증 절차에 근거하여 선택적 지원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 목표(특히 고용증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마을소득 증대 등) 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의 양적 증가에 매몰되는 경향을 띠어 왔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주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들이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한계 극복과 지역공동체 회생(regeneration)에는 관심없고 다만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지원금을 받아 자신들의 사업 번창에 일시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셋째, 지역사회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회적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다양한 사회경제적 자원(인프라, 참여자, 조직 및 단체 등)들에 대한 보다 객관적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사회적경제적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으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 결사체들의 일시적·산발적 지원에만 머물러 지역의 내생적 발전 모델 구축과 순환경제 기반 조성이 요원하다.

넷째, 사회적경제 운동을 추진해 나갈 개별 참여자(인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훈련과 체험이 요구된다. 개별 참여자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가치와 목적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없이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거나 일시적 고용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이 뿌리내리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기업 지식생태계 속에서 체계적 교육과 훈련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 참여자 혹은 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경제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삼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은 지역의 역사, 경제구조, 문화적 특성, 공동체 연대수준, 민주적 시민의식 등을 고려 하에서 발굴·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협동조합의 설립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타 지역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를 비판적 성찰 없는 모방에서 비롯된다면 오래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사람, 그리고 주변 여건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지역협동조합의 경쟁력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국내외 투자유치와 중앙 정부의 지원 등에 의존하는 외생적 발전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내생적 발전 전략을 중요시 하는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면 외생적 발전 전략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바탕위해서 만이 제주 지역사회의 발전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07

제 2 토 론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은 역사적 경험과
시민사회의 역량에 비례한다.**

유정규(지역재단 운영이사)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은 역사적 경험과 시민사회의 역량에 비례한다.

유정규(지역재단 운영이사)

-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에 대한 유럽 선진사례지역(볼로냐, 트렌토 등) 견학을 다녀왔지만 얼마나 이해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임
 - 현상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무언가 이해했다고 하지만 그 대부분은 현재의 존재형태(‘현상’)을 파악하는 인인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선진사례”가 존재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아닐까?
- 협동조합의 도시 볼로냐나 트렌토는 「협동의 필요성」이 일상적인 생산 및 소비생활에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음
 - 가령,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죽제품생산기업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가죽을 생산하는 기업과 협력해야 하고, 질 좋은 가죽을 생산하는 기업은 원피(原皮)를 공급하는 목축업자와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됨.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의 대기업보다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고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존립할 수 있었고, 이것이 오늘날 협동조합의 도시 볼로냐로 발전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됨
 - 이처럼 각 경제주체들간의 협력을 필요하게 만든 원인,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추지 못했던 것일까, 역사적 배경이 다른 우리가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등을 밝혀내고, 실천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퀘백은 어떻게 캐나다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협동조합의 도시가 되었을까, 될 수 있었을까, 현재의 협동조합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행정(주정부 혹은 연방정부)과의 대등한 협상을 가능케 했던 시민사회진영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 캐나다 퀘백의 협동조합을 소개할 때는 대부분이 개별협동조합 보다는 ‘네트워크’ 혹은 지원조직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오늘의 발제도 유사함), 그

원인은 무엇일까?

- 흔히들 퀘백협동조합의 특징 중의 하나로 「지역개발협동조합」을 얘기하는데, ‘조합원의 자발적인 조직체로서 스스로 사업에 참여(=출자와 이용)하고, 그로부터 사회적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인 협동조합의 정의/특성에 비추어서, 지역개발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누구이며, 어떻게 조합사업에 참여하며 이익을 분배/배당받게 되는가 의문임
- ‘지역내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법률상 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며 지역협동조합의 네트워크로 기능하며, 협동조합 설립지원, 협동조합간 협동도모,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이해 대변 등의 목적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조직을 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지 ? ⇒ 지역재단도, 충남발전연구원도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은 이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인 같을까 ?

○ 다기능 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농촌관광, 도농교류, 6차산업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까 ?

- 현 정부의 농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6차산업화’는 결국 다기능 농업의 활성화 혹은 다기능 농업의 일부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지 ?
- 다기능 농업의 발전 정도는 농업/농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즉, 시민들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소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텐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별히 네덜란드가 앞서서 다기능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

○ 우리나라 다기능 농업 현황과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

- 연구자로서의 과제, 정책담당자로서의 과제, 현장실천가로서 과제 등등 ?

08

제 3 토 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위해

송두범(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위해

송두범(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협동조합원칙을 지켜 성공한 협동조합 롤모델이 될 만한 지역사회단위 협동조합과 실험적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야

-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지 않다는 점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조합원이 주인인 자율, 자립, 독립적 운영을 특징으로 함
- 그러나 많은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보다, 상업회사나 준정부기관으로서의 특성이 강하다는 점임
- 도시민중 상당수는 “농협”을 금융기관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
- 협동조합 창업시 롤모델이 필요한데,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다는 점
- 대부분의 롤모델은 외국의 사례이거나 그것도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대규모 협동조합 사례가 대부분임
- 따라서 괴산 불정농협처럼 조합원중심의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성공한 조합들이나, 대전의 품앗이 생협과 같은 실험적 협동조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많이 만들어져야 함

2. 동종 및 이종 협동조합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 영역의 확대가 요구됨

- 상당수의 외국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가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음.
 - －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트렌토, 캐나다 퀘벡 등
- 거대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경쟁에서 협동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연합조직을 형성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네트워크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간 협동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 몬드라곤과 에밀리아로마냐 협동조합은 조합간 수평적/수직적 연계, 금융적 연계, 지역적 연계, 기술적 연계, 고용연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협력해 왔음

- 따라서 우리나라 협동조합들도 기존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간에도 인력/기술/자원/시설활용/교육 등에서의 연대/협력이 요구됨.
- 경기도 안성 고삼농협의 경우 생산은 농협, 도시민에 대한 판매는 소비자 생협이 담당하는 협력모델을 마련

3. 신규 및 기존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이 교육을 통해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역량 제고해야

- 19세기 저명한 경제학과 J.S.Mill은 이렇게 말했다고 함
 - 교육은 모든 인류에게 바람직한 일이고, 협동조합인에게 교육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 협동조합에서 교육은 일회용 행사정도로 치부되고 있음.
- 충남 협동조합들을 조사해 보니, 절반이상의 조합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기존 조합원들 교육도 40%이상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토론자 역시 우리나라 A 소비자생협에 가입하여 신규조합원 교육을 받을 경험이 있으나, 협동조합교육이라기 보다는 생필품 구입에 중점을 둔 교육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음.
- 따라서, 협동조합에 대한 소속감 및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이며, 나아가 협동조합교육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영국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학교가 19세기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함

4. 협동조합을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창업하는 협동조합들의 조합원 수와 출자금 규모를 볼 때, 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듦
 - 실제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신고만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및 운영자금의 확보는 어려움
- 기존 금융협동조합인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지만, 이들 금융협동조합에서는 법인인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대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출범과 더불어 신탁과 새마을금고 등이 새로운 협동조합의 창업 및 운영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협동조합의 대출규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거나, 퀘벡처럼 협동조합기금, 노동자기금, 지역공동체기반 기금, 정부기금, 하이브리드기금, 민간기금 등 다양한 사회기금제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5.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져야

- 퀘벡에서는 지역사회의 빈곤문제 해결, 기업의 창업/운영/사업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개발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전북에서 퀘벡을 모델로 시군별로 지역개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음.
- 충남역시 시군단위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의 조직이 설립 운영 중에 있어, 이들을 모태로한 지역개발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협동조합은 새로운 협동조합의 창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의 연합체 또는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중간지원기관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우리의 경우 퀘벡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인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도 역시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이 필요하다는 발제내용에 공감하며, 퀘벡이나 전북의 지역개발협동조합에서 영감을 얻어 제주형 모델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